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마에스트라 테클라 메를로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 알베리오네

마에스트라
테클라 메틀로에게 보낸 편지

나탈리나 스파다/카타리나 마르티니의 편집 비평본

성바오로딸수도회

작품 머리글자: LMT
감수: Angelo Colacrai, ssp

imprimatur 17 novembre 1986
Albano Laziale
+ Dante Bernini, Vescovo

© 1987 Casa Generalizia delle FSP
Via San Giovanni Eudes, 25 - 00163 Roma

차 례

입 문

I. 알베리오네 신부와 데레사 메를로의 만남	7
II. 서신	9
1. 내용	10
2. 유형	11
3. 가치와 구조	11
III. 주요 골자	14
1. 창립자	14
2. 공동창립자	16
3. 알베리오네 신부와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영적 관계 ..	17
IV. 소견	19
1. 서신의 구성	19
2. 편집자의 개입과 각주	20
일러두기	21
편지 본문	23



입 문

I. 알베리오네 신부와 테레사 메를로의 만남

테레사 메를로(테클라는 수도서원명이다)는 1894년 2월 20일 알바 (쿠네오 주의) 카스타니토Castagnito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15년까지 그곳 자연 속에서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농가에서 살았다.

알베리오네 신부와는 만남은 1961년 그녀의 전기에서 이야기하듯이 1915년 6월 27일, 알바 성 다미아노Damiano 성당의 제의방에서 이루어졌다. 그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곧 그녀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길을 찾으려는 내밀한 갈망의 이끌림과 일 년 전에 창립된 남자 수도회 곁에 여자 수도회를 창립하기 위해, 성령께서 지목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내적인 시급성의 재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참조: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225;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노트 2)

알베리오네 신부가 그 만남에서 테레사에게 제시했던 전망은 하느님의 새로움으로 가득한 미래를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현은 군복을 꿰매는 여성 작업장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그때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그분이 나에게 지금은 작업장에서 일하지만, 후에는 출판을 위한 수도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작업장엔 젊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고, 후에 다른 아가씨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원했다면 그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동행했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후 어머니는 나를 15일 간 그곳에 두기로 하셨다.”(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노트 2.2) 데레사는 “믿었다”. 그리고 “그 15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쓰고 있다.

1915년에서 1918년까지 데레사는 알바에서 안젤라 보피Angela Boffi와 클레리아 칼리아노Clelia Calliano와 함께 살면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점차적으로 작은 서원으로, 교리문답서 제작으로, 기본적인 인쇄기 작동법을 배우는 일로 옮겨갔다.

1918년 12월 18일, 안젤라와 데레사는 — 클레리아는 이미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 3명의 어린 소녀들과 함께 교구 소식지 <라 발수사La Valsusa> 인쇄를 위해 수사Susa 로 옮겨갔다. 그들은 동시에 어린 소녀들에게 중등과정을 가르쳐야 했다.

1922년 7월 22일, 알바에서 처음으로 9명이 수도서원을 발함으로써 성바오로딸수도회가 이루어졌다. 그 기회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데레사를 새로 태어나는 수도회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데레사는 서원하면서 성바오로의 첫 여성 제자를 기억시키는 마에스트라 테클라라는 이름을 받았다. 교구 승인으로(1929년 3월 15일)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프리마 마에스트라”로 불리게 되었다.

데레사는 처음부터 모두에게 자연스런 준거점이 되었다가 1922년부터 마에스트라 테클라로 불리면서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성, 초자연성, 민첩성”(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231)이라는 고유한 색깔로 알베리오네적인 카리스마를 수도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인도했다.

이러한 능동적이고 개인적인 참여로써 그녀를 성바오로딸

수도회의 공동창립자로 여긴다.

II. 서신

1928년 이전에는 알베리오네 신부와 마에스트라 테클라 사이에 편지가 없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서신왕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안젤라 보피Angela Boffi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던 수사Susa에서의 시기를 제외한 이후 성바로딸들의 공동체는 알바에서 현재의 성바로 광장에 자리한 성바로 수도회에 인접한 건물에 살았다. 그러므로 알베리오네 신부를 직접 만났으며, 그분이 매주 공동체 평의회에 참석했으며(참조: 회의록, 1924-1929년), 또 자주 묵상을 해주었다.

그러다가 분원들을 시작하는 수녀들을 동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알베리오네 신부가 종종 알바를 떠나야 했던 시기인 1928년에 서신이 시작되었다.

서신은 발생하는 구체적인 필요들, 문제들, 열린 길들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과 답변을 담고 있으며, 1963년까지 총 115통에 이른다. 그 중에는 아주 짧고 단순한 축하 메시지도 있다.

이 책은 단방향 서한집이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서 받은 편지만 있기 때문인데,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당신의 책상 서랍에 이 편지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 그러나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편지들을 그렇게 보관해두지 않았으므로 단 3통만이 남아 있다. 짧은 메모(편지 53)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서 받은 편지의 빈공간에 답을 적어서 다시 보낸 것(편지 86),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영적 작업에 대한 결실을 적은

것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당신의 승인과 지침을 첨부하여 되돌려 보낸 쪽지(편지 87)이다.

편지들은 타자기로 친 4통의 편지를 빼고는 손으로 쓴 것인데, 타자기로 친 편지 중 3통은 규칙과 훈육에 관한 것이고(편지 63, 85, 93) 다른 하나는 로마교구의 시노드와 공의회를 위한 기도 지향에 대한(편지 99) 것이다.

몇 통의 편지는 날짜가 없는데 여러 단서를 이용해서 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지만, 분명한 날짜 표시는 어려웠다. 그런 경우에는 연도만 표시했다.

1. 내용

서신은 문제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개인적 차원에서 식별하고 실현해야 할 하느님의 계획과 수도회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신 전체의 주된 목적은 성바오로팔수도회를 위한 것으로, “스승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키우시는 이 화초가 잘 자라고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다.(편지 26)

서신들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영성, 사도직, 면학, 청빈이라는 네 분야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해가도록, 수도회를 전체적으로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매일 실현해 가는 가운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부르심 받은 마에스트라 테클라에 대한 영적 지도다.

문장의 어조는 근엄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도 없지 않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프리마 마에스트라 개인과(편지 2, 11, 12, 18,

22, 70, 110) 딸들의 건강, 그들의 노고에(편지 7, 21, 24, 32)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늘 허약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한다.(편지 3, 25, 60, 67)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든 동기에서(편지 19, 25, 59)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까지(편지 19, 25, 59) 회심, 빛, 은총의 필요와 주님과 그분 뜻에 대한 오롯한 탐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 이냐시오의 영향이 드러난다.(참조: 「영신수련」, 186)

2. 유형

알베리오네 신부는 양식화된 서신의 형태를 취하면서 분명함과 간결함도 보여준다. 서신의 도입부는 간결하여, 곧바로 목적을 드러낸다. 마지막 인사는 오직 기도 요청과 축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영적 결심”에 대한 답변 역시 간결하며, 종종 다른 소식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거기에 깃든 영적 깊이는 서술을 압도하며, 문학적인 표현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3. 가치와 구조

우리 견해로는 이 서신이 성바오로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비록 주제들이 아주 간결하게 다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실 서신과 회람들, 내부 회람지의 짧은 기사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손으로 쓴 몇 안 되는 편지중 몇 통을 분석해 보면,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들”(전치사 “di ~<의>”를 계속 생각한 것이 흥미롭다.)이라는

특별한 제목이 없는 본문들은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보낸 지침들이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 편지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 회람지에 실릴 자신의 편지에 삽입하거나 내부 회람지에 게재하였다. 다른 이들은 그 편지들을 매우 개인적인 것들로 생각하였는데, 수도회에서 그의 역할이나 그녀의 영적 삶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던 편지들도 들어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와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회람지와 연관되어 있는 이 서한집은 그 전체가 더욱더 빛을 발하며, 성바로 딸들에게 수도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관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느님의 모든 뜻을 살고 실현하기 위한 창립자와 공동창립자의 고된 식별이 담겨 있는 소중한 영적 유산을 이룬다.

서신을 폭넓게 숙고해볼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탐색의 시기: 수도회 창립 시작부터 회칙의 최종 승인까지 (1953.3.15.) 확장된다. 서신의 본문을 따라가보면 이 시기는 가장 풍요로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시기로 드러난다. 시기에 따라 주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는 92통의 편지가 그것을 드러낸다.

— 1928 - 1933년은 분원 진출시기이다. 알바의 작은 교구 차원을 넘어 교회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요, 하느님의 빛을 탐색하는 시기로, 창립자의 한달 영신수련 피정의 강력한 순간이 있었다.(편지 17, 20, 23)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

기 위한 공동체 방문, 기도, 경청, 다양한 상황과 성바오로의 표양(편지 15)과 “계약”(편지 11)의 정신에 따른 삶의 심화를 고려하며 매일의 기도, 월피정, 특히 영신수련 피정을 이 시기에 특별히 중요시하며 강화한다.(편지 24,29)

— 1934-1936년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가난을 생생하게 체험한 시기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편지 43)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인식도 자라난다. 한편으로는 회칙에 따라(편지 45) 신중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며 일하라고 요청한다.

— 1937-1942년은 수도회의 정체성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교의적·전례적·사목적이라는 세 차원의 사도적 목적을 지닌 단일한 수도회인가, 아니면 세 개의 수도회인가?(편지 53,54) 이 식별을 통해 성바오로딸들의 사도적 목적이 더욱더 출판 사도직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편지 63)

— 1940-1948년은 전쟁과 전쟁 후의 시기이다. 서신에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수녀들의 건강(편지 67, 74), 양성(편지 70), 저술과 편집 시도와 함께 사도직 재개(편지 67, 68)를 위한 염려가 보인다. 또한 전쟁 중에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신 사도들의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마리아께 대한 감사와 그분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드려야 할 필요도 표현한다.(편지 67,70,75)

2) 강화의 시기. 1950년 이후, 특별히 1953년 이후의 서신은 다른 색조를 띤다. 더 간결해지고 더 뜬해진다. 테클라 성녀 축일에 대한 감사와 특별한 축하 인사 카드들이다. 이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영적 삶을 위한 본질적인 지침들이며, 지

나온 길의 선함을 확증한다. “수도회는 모두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수도회를 사랑과 기도, 모범으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편지 106) 서신에서 큰 안도감, 따뜻한 부성애, 교회 권위로 확증된 하느님 뜻 안에 있음을 느끼는 사람의 평화가 드러난다.(편지 92)

지침은 여전히 저술과 편집, 선교, 양성, 통솔에 관한 것이나, 창립자는 수도회 회원들의 영적 깊이에 대해 더 강조한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호소가 강조되어 있다. 곧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일치가 영원한”(편지 99) 천국을(편지 98,101,113) 향해 걸어가라는 것이다.

III. 주요 골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식화하기 위해 주요 골자를 찾는 것이 어찌면 주제넘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표현을 통찰하고 검토해보면 매우 의미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1. 창립자

창립자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움직이는” 이들이다.(「완전한 사랑 1」) 알베리오네 신부는, 천상 스승께서 “당신이 심으신 수도회”(편지 26)를 인도하시고, “성바로팔들과 출판 사도직에 대한 모든 계획”(편지 16)을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알베리오네 신부는 수도회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바로팔수도회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가 “참

으로 명백하게 두 개의 가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음”(편지 9.9.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수도회로 세워지게 되는, 교구 승인의 순간에 경험한 깊은 고통을 드러낸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가 창립될 당시에도 똑같은 식별의 고통을 겪는다.(편지 53, 54) 그때 그는 “은사와 십자가”(『상호관계』 12)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로부터 성바오로딸수도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선한목자예수수녀회의 고유한 성소의 정통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1932년, 한층 더 명확해진 자치권을 통한 확고한 발전 가능성을 성바오로딸들에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의 영적 기쁨을 전한다.(편지 25,26)

이와 같이 서한집은 알베리오네가 수도회의 아버지로서, 하느님 뜻의 중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편지 22) 곧 성소의 은총이 자라나도록 자신을 선물로 바치는 부성성: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기도, 표양, 조언으로 도움을 줍시다.”(편지 11) 하느님 계획의 전달과 온순함을 요구하는 중재: 사실 그분에게 순명함으로써 “성소를 살아가고, 그 성소 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가장 큰 이점”(편지 59)을 지닌다.

그는 점진적으로 성바오로딸들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도한다. 곧 개인(편지 22)과 단체(편지 93, 95) 선교어로, 서원에 대한 올바른 의미로(편지 36), 그리고 저술가 수녀들을 위한 집을 구상하면서 저술과 편집에 대한 올바른 의미로(편지 67, 68), 풍요로운 결실을 맺도록 사도직을 위한 신학적 면학으로

(편지 29) 인도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도록”(편지 10) 삶을 확고히 해 주는(편지 10)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아가라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성바로팔들은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해석자이며 그분을 가장 충실히 닮은, 가장 성실한 사도”(편지 98)인 성 바오로의 마음(편지 15)을 늘 지녀야 한다. 성 바오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도록 해 주시는 분, 곧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위대한 길에 있도록 해 주시는”(편지 89) 아버지(편지 57)이시다.

2. 공동창립자

서신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수녀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수도회의 지침을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중재를 통해 전달한다.(편지 17, 20, 25, 29, 45, 49 등등)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받은 지침을 풍요로운 선물이 되도록 시행하고, 또는 하느님의 뜻이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깊게 식별하여 전달한다.(편지 53.1)

서신 전체에서 보면,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성바로팔들에 대한 하느님 계획에 함께하는 공동 참여와 공동 책임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걸음에 대해 알려주고, 그녀가 나서기를 당부하며(편지 22, 42, 57 등등), 문제들과 창안들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기다리며(편지 4, 6, 7 등등), 수녀들이 “선을 행하는 데 해가 되지 않도록”(편지 3) 사도직의 규칙을 주도록 위임하며, 다른 여자 수도회와 올바른 관

계를 맺도록 책임을 맡긴다.(편지 9, 53, 54)

마지막 서신에서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거의 사라지고, 딸들 앞에 “어머니”를 내세우며 그 뒤를 따르라고 한다. “성바로 딸들이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온순했기에 사도직이 이만큼 빨리 발전하고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편지 115)

3. 알베리오네 신부와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영적 관계

성바로 딸들에 대한 하느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알베리오네 신부와 프리마 마에스트라 간의 긴밀한 협업은 영적 지도 관계로 변화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서한집은 이러한 차원을 반영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영적 목표 탐구는 그녀의 근본 선택 실현에 관한 것으로, 1933년 “구원의 희년”이 시작될 때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재차 표현한다.

“나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성찰노트 2)

그녀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신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 주는 분이라는 “영적” 확신을 지닌다. 이 때문에 그녀의 개방성과 온순함은 전면적이다.(편지 86.1, 87.2) 그러나 서한집의 내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은 마에스트라 테클라 개인의 성찰 노트와 함께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녀는 거의 매주 “영적 아버지”에게 받은 지침들을 — 다른 것과 함께 — 기록

해 놓았다.

이 지침들은, 매번 날짜와 지도자의 이니셜 “P.M.(프리모 마에스트로)”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성스럽게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한집에 이 기록들을 모두 실을 수는 없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자신의 영적 계획을 적어서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보냈고, 그는 거기에 자신의 확인과 지시를 덧붙였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매우 소중히 여긴 그 몇 마디 말을 잘라서 성찰노트에 적은 영적 계획 옆에 붙이곤 하였다.

이런 조각들을 모아보면 모자이크가 완성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하느님의 활동을 지극히 존중하는 가운데,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영적 여정을 더욱더 “하느님과의 일치”(편지 58)에로 이끄시는 성령의 촉구에 응답하도록 동반한다. “겸손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곧 주님 안에서 어린이처럼 바랄 것.”(성찰노트 2)

겸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성에 대한 이 큰 열망에 따라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하느님의 자비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기”(편지 20) 위해 점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을 벗어버리면서 자신의 길을 간다. 다음은 명시된 성장의 수단이다. 의식 성찰(편지 28), “모든 것을 지고의 사랑으로” 임하는 “조용하면서도 활동적인 사랑”(편지 30).

1941년부터 하느님과의 일치는 “단순함”과 “수동적”인 걸음에서 더욱 깊어진다.(편지 58)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완전히 내어맡기는 가운데 머물면서, 깊은 어둠과 밤을 체험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비에도 나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성화를 향해 성장하도록 동반한다. 곧 중요한 것은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편지 75)과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편지 78)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성회시키시는 그분의 지속적인 현존”(편지 75)을 맛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드시도록 “그분의 섭리에 맡기는 것, … 특히 하느님의 참된 사랑 안에 맡기는 것”(편지 86)이다. “그분이 만족스러워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편지 101)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편지 110)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분의 십자가”(편지 101)이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편지 107)을 봉헌하고, “빛속이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편지 101), 어둠 속에서도 평온히 지낼 수 있는 것(편지 106)”이다.

1950년부터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외에 다른 영적 계획은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런 내어 맡김은 1961년, 성바로오팔 모두가 성녀가 되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어머니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위대한 성덕에 대한 열망은 이렇듯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가운데 천상 스승을 닮아가는 것에서, 삼위일체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에서 절정에 달한다.

IV. 소견

1. 서신의 구성

서신들은 연대순으로 번호를 매기면서 모아졌다. 수신인은

“중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 “프리마 마에스트라”, “착실한 성바오로딸”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33통의 편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다. 이 때문에 그것의 진위여부를 정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는데, 서한집의 끝에 배치된 마지막 편지만 제외하면 수취인이 모두 마에스트라 테클라로 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편지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수도회의 연결을 보여주며 딸들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보낸 사람에 관한 표현도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이다.

거의 모든 서신들이 약어로 시작된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JMJP(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82회>)이다. 그 가운데 GDPH(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2회>)는 후에 바오로적 모토가 될 것이다.

사용된 편지지도 다양하다. 편지지 윗부분에 주소와 이름이 인쇄된(레테헤드) 것과 엽서와 그림, 쪽지 등이다.

2. 편집자의 개입과 각주

편집자의 개입은 최소화하였다. 해독이 어려운 경우 짧은 소개말, 생략된 구두점 첨가, (약어 끝에 있는) 쓸모없는 구두점 삭제, 긍정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름의 생략, 보낸 사람이 지운 두 개의 문장 복구, 구문 수정 등이다. 불분명한 단어의 발음은 구별되는 부호로 표시했다.

손으로 쓴 것에서는 매번 마침표 뒤에 대시(-)가 따라온다. 다양한 내용일 때 줄이나 별표로 구분된다. 매번 우리는 출처를 설명하려고 했다. 문장 가운데 있는 대시는 생략했고, 꼭

필요할 경우 첫 줄에 실었다. 별표나 선은 인쇄 문제로 인해 여백 공간으로 대체했다.

각주는 세 가지이다.

ㄱ) 출처의 성격과 상태를 드러내는 각주

ㄴ) 첨자로 표시한 연구자료

ㄷ)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역사적-문화적 각주

첫 번째 각주에서는 편지가 손으로 쓴 것인지 혹은 타자한 것인지, 종이의 종류, 크기, 글씨체, 삽화 등등을 보수했다. 그림 옆서에 실린 메시지의 내용과 레터헤드(윗머리에 수도회의 이름과 주소 등이 인쇄된 편지지-역주)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표시했다.

비평 자료에서 동일한 정보를 다루게 될 때 같은 주석을 참조하도록 동일한 첨자를 반복했다. 자필원고와의 차이, 실재 여부, 기호의 위치 그리고 소견들을 표시했다.

문화적 각주에서는 본문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역사적인 배치를 위한 정보들을 실었다.

역사적인 부분을 위해, 역사기록 자료실을 맡고 있는 로렌자 빈니 Lorenza Binni 수녀가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 특별히 알베리오네 신부님과 마에스트라 테클라 가까이에 있었던 몇몇 자매들의 힘을 입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사건들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

Sr. 나탈리나 스파다 Natalina Spada

Sr. 카타리나 마르티니 Caterina Martini

일러두기

a, b, c(번역본에서는 *, **, ***로 바꿈)는 비평 자료에 관련된 각주.
 각주 내용을 이탈리아어에서 한국어로 옮길 때 첨가, 삭제, 수정, 생략이라고만 표시된 부분은 아예 삭제했고, 꼭 필요한 사항은 위에 제시했듯이 *, **, ***로 실었다.

{ }는 자필원고에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삭제한 표현을 비평본 편집자가 본문에 다시 실은 변화된 부분.

[]는 비평본 편집자가 개입한 부분.

○○은 고유 이름 생략.

[sic]은 편지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옮겼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부정확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나 인용문 옆에 사용한 알림 부호.

Roma, 14-3-1900

Buona Prima Maestra,

Benedico il viaggio e le sorelle che vi sono
in Spagna. È un viaggio faticoso ma di carità per
tutte; seranno liete ed aiutate,

La Congregazione va bene e piace al Signore;
la Prima Maestra **연지 분문** è guidata bene con la
carità, la preghiera e l'esempio. Ora occorre
dire al Signore: «Da me nulla posso, ma con
Dio posso tutto»; quindi serena fiducia.
Vi è un bisogno tra le Figlie S. Paolo, in questo
momento: di umiltà. Ed in questi prossimi
giorni parleremo di lui in tale virtù.

Eleggiamo Maria come Madre, Maestra e
Regina dell'Istituto; Maria farà tutto e tanto
bene. - Pughosi di lui in questo tempo.
Se vi è un fi di lui staremo in serenità
anche al buio; ma in amore e fede, farà bene
il Signore. Ogni benedizione

Soc. S. Albertoni



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¹

1928년 11월 19일, 알바

훌륭한 수녀님들에게*²

저는 어제 하느님을 찬미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몹시 절실하기에 지금도 주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집 주인과 부인³이 동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값을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이미 금액이 높은데 말입니다!

주교님께 그 일에 대해 알려드리려 이미 편지를 썼습니다.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주교님을 찾아뵙시오. 그렇지 만 여러분이 우선 정신을 좀 차릴 때까지 며칠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교님이 제게 답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지1: 자필 원고 맨 위에 “성바오로수도회-인쇄 사도직을 위하여-알바-토리노-로마(알바관련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입되어 있다)”라고 인쇄된 235×150mm 크기에 쓰여 있다. 정자체로 선명하게 쓰였다.

- * 공동체에 보낸 것이지만, 내용은 특별히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한 것임.
1. [원서에서 사용한 MJJP]는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를 가리키는 약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바오로적 정신의 요약으로 여겨 모든 서신에 쓰기를 제안하던 머리글자다.
 2. 이 편지는 살레르노에 보급을 위한 바오로딸들의 첫 공동체가 탄생할 때 쓰였다. 바쁜 일정 가운데 알바에 머무는 때였다. “바오로딸들의 착복식이 있고 나서 3일 뒤인 1928년 11월 1일에 성무일도 저녁기도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바오로딸들을 성체가 현시되어 있던 성당에 다시 모이라고 하셨다. 그러고 나서 막 떠나려는 다섯 수녀에게 복음서를 주셨다. 간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다음 장엄강복을 해 주셨다. 그 예식으로 분원 개설의 서막이 열렸다.”(「살레르노 분원 이야기」,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3. 집 주인 부부의 이름은 모른다. 비아 가리발디 19에 있는 집 1층 방 2개 짜리에 수녀들이 세 들어 살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앞의 책 참조)
 4. 그레고리오 그라스 몬시뇰께 보낸 편지, 1928년 11월 3일. (앞의 책 참조)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녀들이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류⁵와 관련해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아야 합니다.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수녀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앙심이 좀 더 깊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녀님들은 오늘 베로나에 갔지요. 잘 갔으리라 믿습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5. 성바오로딸들은 아직 수도회로 인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바 주교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8년 12월 12일, 알바

성 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수녀님의 살레르노Salerno, 바리Bari, 로마Roma, 베로나Verona¹ 여행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살레르노와 바리, 그리고 로마의 마에스트라 아말리아Amalia와 토리노Torino 의 ○○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저는 1929년에 토리노에 남아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저에게 동일한 요청을 했기에 동일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괜찮은지요? ... 장소를 바꾸면, 덕이 생긴다고 믿는 그들입니까? 바꾸어야 할 것은 마음이고 머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서원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수녀님이 여행중에 있으니, 돌아오는 길에 토리노도 들를 수 없을까요? 저는 짧게라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베로나에 대한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능할 때, 축하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적·물질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까? 수녀님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팸플릿과 작은 포스터를 사방에

편지2: 자필원고. 앞의 편지1과 같은 크기의 종이 윗부분에 인쇄된(레터헤드) 종이 양면에 적혀 있다. 뒷면에는 기울임꼴의 선명한 글씨체로 내용 구분이 가로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 딸들에게

1.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살레르노에서 바리로 가는 동안, 바리에 세 명의 자매가 도착했으므로 그들과 함께 그 도시에서 바오로딸 공동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잠시 머물렀다가 베로나로 떠났다. (「공동체 역사」 참조)

보냅니다. 이미 「사목생활²Pastorale」을 새로운 분원들로 보냈습니다.

알바의 상황은 평온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저는 천상 스승님께서 인도하심을 봅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 성탄 전에 좀 쉴 수 있기 위해서라도 22이나 23일에 도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알베리오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추신: 각 분원의 회계에 수녀님의 여행 경비도 넣어야 합니다.

2. 주교들과 본당사제들에게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팔수도회를 그들의 특별한 사도직과 함께 소개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정기 간행물이다.

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4월 24-25일], 베로나*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만일 수도원에 「실천적인 5월Mese [di] Maggio pratico」이 아직 남아 있으면, 저에게 (가능한 한 빨리) 30부를 보내주시고, “무짜렐리Muzzarelli” 1000묶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얼마 동안 여기서 머물렀는데 이제 좋아져서 오늘 바리로 떠납니다. 여기서 제가 좀 폐를 끼쳤지요.

유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로나의 (구성원들은) 정신도 좋고 사도직도 좋습니다. 하지만 알바에 가서 율피정을 하도록 그들을 좀 더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2. 몇몇 본당에만 간행물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늘 그러합니다. 한쪽에 조금, 또 다른 쪽에 조금씩 가져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성 미카엘 성당 외에, 오르가노의 성 마리아 성당, 그리고 성 토마스 성당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가

편지3: 자필원고. 레터헤드(150×235mm)지 사용. A.(알베리오네?)는 종이 상단에 있는 머리글을 고려하지 않고 종이의 옆쪽에 썼다. 앞면에는 곧고 선명한 글씨체로, 뒷면에는 큰 기울임꼴로 썼다. 앞면 내용들에 1번에서 9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뒷면에서는 내용들이 중앙 선에서 대시로 분리되어 있다.

* 날짜 생략됨. “바리로 떠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4월 24일이나 25일 사이에 쓴 편지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바리에서 4월 27일에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 이 문장은 마침표 뒤에 짧은 두 줄로 추가되었고, 세로 대시로 강조 표시되었다.

1. 인쇄 사도직은 탁발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교리의 전파입니다. 곧 지성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에 전해 주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작은 선행입니다!

3. 실무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그곳 자치 도시와 함께 그것[?]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한 것에 대해, 교구청의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만지니 몬시뇰²께 성직자 신문에 기사가 실리도록 요청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모두가 공동체에 있을 때, 여기서 조각상을 만들거나 책을 제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그림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엽서 위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5. 분원들은 5월-6월-3월[sic]을 위해 최대한 빨리 책들을 [sic]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 달이 시작되기 15일 전부터 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6. 각 분원에서 받은 금액과 성소자, 조연, 사도직을 [모원]에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7. 만일 가지고 있던 자금을, 곧 알바에서 받은 그 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 곳을 토리노에서 찾을 수 있다면, 네비올로 Nebiolo³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수도원이 하나이듯 관리도 그러합니다. 이는 각자 자신의 힘으로 인쇄 사도직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여러분은 여기에 “예수님께 입맞춤을”⁴ 500묶음 보낼 수 있

2. 주세페 만지니(1866-1956) 몬시뇰은 베로나 교구의 총대리였고, 이후 교구 주간지인 <베로나 페델레 *Verona Fedele*>의 책임자였다.

3. 네비올로 회사는 성바오로수도회에 인쇄기를 공급했다.

습니다. 아름답지요. 그들은 그것을 작은 엽서 위에 붙일 것입니다. 반드시 짙은 갈색 잉크로 인쇄해야[sic] 합니다. 저는 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 여기 ○○는 정신을 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아가 무엇인가 명할 때는 매우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토리노 교구청에 편지를 쓰려면 제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성 바오로에게서 큰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중재하는 제가 수도원에 없는 지금 말입니다.

저는 5월을 위해 딸들과 경건한 제자들이⁵ 사도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은총에 온순한 마음을 지니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을 배우기를, 그리고 경건한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여러분이 그들의 많은 선물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며 축복을 보냅니다!

-
4. 예수님께 입맞춤을: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얼굴을 재현한 인쇄물로,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죄에 대한 보속으로 예수님께 입맞춤하라.”
 5. 이 편지에서 성바오로딸수도회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곧 두 개의 여성 수도회에 대해 처음으로 분명하게 시사한다. 자율적으로 설계되고 또 탄생된 “두 개”의 가족을 “하나”인 것처럼 인도하면서, 그때부터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겪었던 진정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노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성바오로딸들을 위해서, 처음에 알바의 주교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에게 성바오로수도회는 승인했지만, 수녀회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회 회성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을 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곧 우리가 둘로 분리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테클라 메를로, 노트 1,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나중에 수녀님께서서는 외출, 간행물들⁶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수녀들에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것에 관한 정신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걸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인사를 전합니다.

바르톨로메아가 매우 경건하고, 사려깊으며, 인자하기에 여기 공동체는 평온합니다.

성바로 안에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6 본당 회보들에 더해 일반적인 성격의 간행물들이 작은 종이에 4쪽으로 인쇄되었다. 수도원이 시작할 때부터 수녀들은 그것을 가정에 전해 주었다. 이는 그 지역을 알고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책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다.

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4월 27일, 바리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I. 분원들에서 신학교, 학교, 교육기관을 위해 학교 교재들을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목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로 관계가 시작됩니다.

II. 그리고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ㄱ) 목상, 조연, 방침을 받기 위해 늘 모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ㄴ) 반면에 성직자, 좋은 수도자, 그리고 특별히 일반인들과는 적당한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우리] 고유의 정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신을 흠쳐가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순박하고 슬기로워야 합니다!

III. 그들은 간행물, 도서관, 책 때문에 일해야 하지만, 교환, 할인 등등을 해 주는 많은 출판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IV. 여기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더군요! 나중에 이 착실한 딸들을 위해 우리가 영신수련 피정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알바에서 오는 청구서에 신경을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엄청 오래된 청구서를 가지고 있더군요! 따로 수십 개씩 주문하는 이들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 묵주들은 고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차분하게 그

편지4: 자필원고. 줄 있는 종이(135×210mm) 앞뒤에 썼으며, 글씨체는 또렷하지만 급하게 쓴 것 같다.

* 서명에 이어 “추신. 270리라 수표 동봉됨.”이라는 보고가 삭제되었다.

1. 창립자는 성바오로딸들에게 이러한 경계를 늘 당부하게 될 것이다.

것을 살펴보세요!

저는 살레르노로 떠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로마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얻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으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딸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카냐노Cagnano-바라노Varano-에서 소녀 하나가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바리 출신의 소녀 하나가 올 것입니다. ... 여기 바리에서 그 소녀들을 좀 겪어보면 잘 알게 되겠지요!
인사 드리며 기도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4월 28일, 살레르노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여기는 ‘주님 안에서’ 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야기한, 기대하고 있을 성소자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새 소식은 없습니다. 수녀님은 본질적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공동체에서 사도직의 정신과 실행에서 많이 진보한 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좀 더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ㄱ) 알바 공동체에서 받게 될 일반적인 방침을 따르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은 직접 공급하고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ㄴ) 그들이 직접 제안하고 찾아가면서 신학교, 교육기관, 병원에 관한 일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ㄷ)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 서둘러 방법을 찾는 것, 가격을 협상하는 것, 그들이 맡은 일부 자분을 위해 자금을 구하는 것 등등입니다.

수녀님은 이것을 회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일 저는 로마에 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엔 칼리아리¹⁾입니다

편지5: 자필원고. 또렷하고 알기 쉬운 글씨체로 노트(150×150mm) 종이 한 장에만 적었다.

1. 칼리아리 분원은 1929년 2월 5일에 개설했다. 알바에서 오는 세 명의 자매를 맞이하기 위해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로마에서 갔다.

다. 그 은총에 대해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절실하게 자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축복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8월 22일, [알바]

착실한 성바오로딸,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바리에 관한 기쁜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대리 몬시뇰께서 주신 방침과 좋은 말씀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그곳에서 선을 행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기에, 특별히 천상 스승님께서 경건함과 덕스러운 정신을 잘 보살피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살레르노와 칼리아리의 훌륭한 딸들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영신수련 피정을 위해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지금 칼리아리를 방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영신수련 피정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바 소식인데, 마에스트라 브리지다¹를 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신수련 피정은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은총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행의 좋은 성과에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6: 자필원고. 레터헤드(150×235mm)지 상단에는 성바오로수도회, 알바 외에도 토리노, 베로나, 로마, 바리, 살레르노, 칼리아리의 여섯 개 분원 주소가 있다.

편지는 바리에 있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도착한다.

1. 마에스트라 브리지다 페론(1899-1977)은 평의원으로서,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부재시에 알바에서 그녀를 대신하였다.

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8월 31일, 알바

존경하는 마에스트라께

칼리아리에 관한 기쁜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소 두려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공동체에 충분히 머무
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영신수련 피정은 좋습니다. 월피정 또
한 좋습니다.

영신수련 피정에 관해서는 수도원에서 이야기하기로 합시
다. 곧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나누기로 합시다. 우
리는 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선교는 책만큼이나 성소자에 있
어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마에스트로와 마에스트라가¹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수녀님은 제 이름으로 ○○에게 더 좋은 식사를 주문하여, 그것
을 마에스트로와 마에스트라에게 제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7: 자필원고.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묘사한 그림 엽서. 본문과 주
소를 위한 하얀 여백 윗부분 중앙에 "성경 엽서"라고 적혀 있다. 5센
트와 25센트짜리 우표가 부분적으로 붙여 있다. 엽서의 왼쪽 가장자리
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주님의 말씀 그림: 성
경을 설명하고, 보급하고, 대중화하고, 옹호하기 위한 성경 엽서 대(大)
모임." 엽서에 적힌 주소는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마에스트라 테클
라-성바오로수도회-비아 그로타 페르페타Via Grotta Perfetta 6-로마
142". 주소 아래 하단에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알바-인쇄 교육
학교".

1. 두 공동체의 원장인 마에스트로 티모테오 자카르도(Timoteo Giaccardo,
1896-1948)와 마에스트라 아말리아 페이롤로(Amalia Peyrolo, 1899-1980).

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11월 9일, 살레르노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우디네에도 화물 차량¹을 보내십시오. 한달에 400리라는 적당합니다.

우디네 주교님에게 딸들이 한동안 [거기에] 간다는 것을, 신학자가 서명한 편지로 알려드리십시오.

통상적인 서류는 후에 만들 것입니다.

보카²신부님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팔레르모 주교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알바에서 우디네로 화물 차량을 보내십시오.

칼리아리를 위해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오늘 저녁에 바리에 갑니다.

이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 자필원고. 줄이 그어진 편지지(110×180mm)에 글씨는 또렷하지만 급하게 쓰였다.

1. 화물철도차량으로 알바에서 분원에 필요한 것들, 곧 침대, 매트리스, 담요와 시즈를 공급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선교를 위한 책과 종이를 공급했다. 우디네 분원은 1929년 9월 17일에 진출했다.
2. 참사로서, 보카 바오로(Vocca Paolo, 1885-1970) 신부는 초기에 살레르노 바오로딸 공동체를 특별히 돌보았다. (참조: 「살레르노 수도원 역사」)

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29년 11월 9일, 살레르노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 성바오로딸에게

로마에서 그들이 수녀님을 공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입장에서 물러나서 수녀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두 가족¹의 참되고 분명한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녀님의 직분을 통해서, 경건한 제자들이 딸들에게서 폭넓게 독립성과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경건한 제자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 곧 주방에 대해 (마에스트라들, 딸들, 마에스트로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도록 스콜라스티카² 수녀님이 조언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에 대해서도 평온하게 정리하십시오. 마에스트라 아말리아는 느리게, 너무 느리게 나아갑니다.

편지9: 자필원고. 편지지(180×110mm)의 첫 세 쪽에 적혀 있다. 또렷하지만 글씨체가 갈수록 급하게 쓴 느낌이다.

* 페이지 하단의 테두리 여백에, 곧고 큰 글자로 적혀 있다.

1. “성바오로딸과 경건한 제자. 이미 수도회성의 프레페토(Prefetto) 추기경에게 1928년 12월 18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저의 의무로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릴 목적으로’ 알현을 청했다.(수도회성, 문서고 A 83) 1929년 3월 10일 승인 허락으로 열린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학자께서는 우리의 승인 증서를 읽으시고, 이 규약을 인쇄하여 분원이 진출해 있는 도시의 주교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서원식 (...)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경건한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승인을 위해 다시 수도회성에 말할 것이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훌륭한 조화와 화합을 돌볼 것.”
2. 스콜라스티카 리베띠(Scolastica Rivetti) 수녀님은 경건한 제자들의 책임자였다.

그녀가 맡은 학급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적을 경우엔 한 학급(4명의 소녀들)을 알바로 보내는 것이 유익했을 것입니다.

여기 살레르노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수녀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덕과 열성이 더 필요합니다. 마에스트라 에드비제³는 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살레르노를 위해 곧바로 간행물을 더 많이 만드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만든 3천 부를 포함하여 1만 부를 만드십시오. 제 생각엔 이미 그곳으로 가기로 예정된 딸들과 함께 그것들 일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 분원에도 곧바로 간행물을 보내주십시오.

로마에서 서원⁴의 체계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수녀님이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곧,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덕과 열정이 꽃피운 것을 봅니다! 살레르노에서도 벌써 아주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바리로 떠납니다. 제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딸들이 영신수련 피정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인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딸들의

3. 평의회 일원인, 마에스트라 에드비제 솔다노(Edvige Soldano, 1897-1983) 수녀님은 그녀가 오랫동안 수행하게 될 방문자의 역할을 시작한다.

4. 로마에서 성바로딸이 관리하는 서원은 비아 줄리아(via Giulia) 208에 있었다.

에너지와 의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부족하지요.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여기에 오래된 복음서가 많이 있습니다.*

1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2월 14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영신수련 피정의 좋은 열매를 위해 저는 여기서 경건한 제자들과 성바오로딸들과 사제들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더 많은 사도직의 열매를 바라시는 살레르노에서 마에스트라 에드비제가 어느 정도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15일 정도 머물 수 있을까요?

한편, 저는 ○○가 제노바에 빨리 가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녀가 부응할 줄 알게 된다면, 그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도직을 위해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에 저는 성바오로딸들의 성소자들을 위해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하기에, 늘 그들의 지식을 넓혀 달라고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앞에 준비되어 있게 해달라고, 특히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팀과 팀 간에 구별짓지 않게 해달라고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바꾸십시오!¹ 축복하면서!

가장 어려운 공동체들을 더 잘 돌봐 주세요.

편지10: 자필원고, 알바의 레터헤드 (130×190mm)지 오른쪽 위에 세로로, 6개의 분원 주소가 표시된(편지6 참조) 종이에 곧고 과감한 글씨로 양면에 적었다.

* 둘째 페이지 왼쪽 상단 여백에 적혀 있고 약간의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1. 이 방침은 알베리오네 영성의 핵심이다.(참조: 「인쇄 사도직」, 알바 1933, p. 99이하)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의 소명은 주방도 세탁실도 아닙니다. 반면 ○○의 소명이 거기가 맞습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모두를 그리고 각 사람을 축복합니다.*

1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2월 22일, 알바

훌륭한 성바오로딸에게

살레르노에 그리고 이어서 바리에 잘 도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딸들이 그들 마에스트라의 현존으로 그들의 사도직에서 축복을 받고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통회의 기도를 많이 바칩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적어도 우리의 결점¹을 가져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인이 되어 그들이 은총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딸들에게 지불금과 부채²를 어느 정도 부과시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들이 덕으로 행한 그들의 한 가지 노력이 열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한 가지 사도직이 여섯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과의 계약³의 기도를 잘 바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에스트로처럼,⁴ 무지하

편지11: 자필원고. 레터헤드(235×150mm)지 앞뒤에 또렷하고 과감한 글씨체로 적었다.

1. 나중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한다. “생명이신 예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은총과 위로를 가져가게 하소서.”[참조: 「사도의 모후」, 7-8월(1951) 1]
2.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분원에 어음으로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은 다음 해에 더 늘어나고 무거워질 것이다. 1930년 3월 21일자 회람지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알베리오네 신부님의 글을 편지에 옮긴 다음—다음과 같이 적는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채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에 더욱 많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3. 그 당시의 계약 혹은 성공의 비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로 4개를 배우게 하시고,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로 10배를 주시고, 일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로 5배를 주시고, 물질적 자산은 하나로 6배를 주소서.” [성공의 비결(로마 1979) 11] 참조
4. 알베리오네 자신을 암시한다.

고 허약한 딸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와 빛과 은총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저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중에 평온하게 모두에게 이것을 적도록 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훨씬 더 나은 기도, 모범, 조언, 인적人的 도움을 더욱더 많이 제공하도록 합시다.

저를 위한 기도와 여러분을 위한 은총을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1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2월 23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보답해 주시고, 선하고 애정어린 방문이 열매맺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살레르노에서의 영신수련 피정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상 스승님의 부르심이 빨리 도달되기를 바랍니다.

26세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층 더 늙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최상의 미래를 위해 모두에게 좋은 많은 은총이 이제 살레르노에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몇 마디 좋은 말도 적어 보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선교에¹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팔레르모에 대해서 수녀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편지12: 자필원고, 30센트 짜리 우표가 붙여진 우편 엽서에 적었다. 앞면에 성바오로수도회-인쇄 사도직을 위하여-알바 그리고 6개의 분원이 적혀 있다. 주소는 바리에 있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로 되어 있다. 글씨체는 또렷하고 과감하다. 뒷면은 통신란이다.

* 오른쪽 상단에 정사각형 안에 두 줄로 적혀 있다.

1. 이전 해에 시작된, 알바에서의 선교는 더 잘 조직되고 있었다.(참조: 내부 회람지, 성녀 테클라 1930)

1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3월 9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살레르노의 좋은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는 벌써 본가로 돌아갔나요? 그녀를 대신할 이를 보내셔야 할 겁니다.

팔레르모에 대해서는 이제야 준비되었습니다. 피렌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니* 저는 기쁩니다. 수녀님께서 저에게 요청한 것을 마에스트라 마르게리타¹가 오늘부터 준비하리라 생각하시겠지요. 여기에서 연장자 딸들을 위한 목상을 따로 하는 것이 유익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녀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노바를 위한 제 생각을 수녀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원에 ○○와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제노바에 가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 다음 목표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시를 내리지 마십시오. ... 이후에 신학자가 바로 지시할 것입니다. 한편 ○○가 장학금 받기를 바라며, 사도직 체험의 폭을 넓히도록 당분간 서원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13: 자필원고. 편지10과 같이 레터헤드(130×190mm)지 앞뒤에 또렷하고 가지런한 글씨체로 썼다. 서명 다음에 위치하는 마지막 말은 특정한 표시가 삽입되지 않았다.

* “준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마에스트라 마르게리타 비넬로(Margherita Binello, 1898-1976)는 평의원이며, 분원의 배송을 담당했다.

사순절²에 관한 생각을 축복합니다.

수도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ㄱ) 공동생활 ㄴ) 개별사항을 개선하는 것 ㄷ) 사순시기의 특별 성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영신수련 작업을 더욱 잘 하시기를 빕니다!³

-
2.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당신에게서 사순절을 위한 영적 작업을 지도받은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모원을 위한 지침을 부탁한다.
 3. 영신수련 피정에 관한 빈번한 독려는 회원들에 대한 필요성이지만, 교황청의 가르침에 대한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끊임없는 관심을 반영한다. 곧 교황 비오 11세께서 1929년 12월 20일에 영신수련에 관한 회칙 「우리의 마음 *Mens Nostra*」을 발표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토리노의 후원자 (피넬로 Finello 씨)에게 보내는 1930년 1월 12일자 편지는 흥미롭다. “...저희는 영신수련 피정 전용의 집을 원합니다. ... 교황님께서 바로 요즘에 영신수련을 위해 특별 회칙에서 독려하시고, 가급적 영신수련을 그 전용 장소에서 하라고 권고하신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하며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B4) (편지의 전송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다.)

1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8월 24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레지오¹에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파르마 교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볼로냐에서 온 기쁜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그들이 저쪽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런 부분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딸은 ... 어음²과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수녀님이 적으신 대로 새로운 알림이 있을 때까지 마에스트라 에드비제가 머물길 바랍니다.

우디네에서 주교님³을 찾아뵈러 가는 것은 좋습니다. 서원에서 미사보를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영신수련 피정을 위해 사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스티가 괜찮은지 마에스트라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과 영신수련 피정의 열매를 위해 수도회의 모두를 위해 기도를 바칩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당신 영광과 영혼들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음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를 빕니다.

편지14: 자필원고. 레터헤드(110×180mm)지에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 두 줄 사이에 들어 있다.

1.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에 있는 분원은 1929년 10월 20일에 개설했다.
2. “그녀는 더 많이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
3. 주세페 노가라(Giuseppe Nogara, 1872-1955) 몬시뇰.

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오늘 저녁에 월피정을 합니다.*

1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9월 1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이제 트레비소에서 그들이 선교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신수련 피정 및 그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생각하기로 해요. 일단 급하지는 않습니다. 트레비소로 보낸 5천 부의 간행물¹은 그들에게 좋은 선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디네에서 맺은 모든 열매에 대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바오로딸들이 더욱더 사도의 정신을 갖추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영신수련 피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결실이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² 내일, 또 다른 코스가 있습니다.

저의 회심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심을 청합니다.

베로나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5: 자필원고, 레터헤드(110×180mm)지의 한 면에 적었다. 처음에는 또렷하고 평이한 글씨체였는데 뒤로 갈수록 글씨체가 흔들리고 있다. (편지) 내용은 선 중간에 별표로 구분하여 적었다.

1. 편지3번과 6번 참조.
2.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영신수련 피정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로 그때부터 영적 계획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1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9월 23일]*

오늘 아침 성녀 테클라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올곧고 열성적인 순수한 지향을 성바오로에게서 우리에게 얻어 주시도록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성바오로딸들과 인쇄사도직에 대하여 갖고 계신 모든 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6: 자필원고. 돌치[Dolci]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를 재현한 엽서. 주소에 할당된 공간 대부분을 또렷하고 평이한 글씨체로 채우고 있다.

* 날짜가 생략됨. 이전 편지에서 신부님은 “성바오로딸들이 사도의 정신을 더욱더 갖추도록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여기에 배치했다.

1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10월,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살레르노에서 온 기쁜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대주교를 다시 만나러 그곳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살레르노를 위해 기도합니다.

칼리아리에 들르는 것도 좋습니다.

키에티Chieti나 포자Foggia를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주 보고 이야기하도록 보류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 거듭 얘기하면서, 피렌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음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방문의 가장 좋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제 때에 통보하고 방문하게 되는 모든 공동체에서 월피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타란토에 들러서 대주교님²을 만나 가능성을 듣고 잘 판단하고 싶습니다. …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답해 주기로 합시다.

이제 저는 영신수련 피정³을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그리고

편지17: 자필원고. 노트 종이(150×210mm) 첫면에 곧고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 날짜가 생략됨. 우리는 각주에 언급된 영신수련 피정에 대한 단서에서 그리고 **에 이어지는 문구와의 긴밀한 연결성에서 이 날짜를 여기에 삽입했다.

1. 알베리오네 신부님에게 관행이 된 제안이다.
2. 오라지오 마젤라(Orazio Mazzella, 1860-1939) 몬시뇰.

여러분을 위해 주님만을 바랍니다. 곧 천상 스승께서 원하신다면 ... 나중에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은 특히 소규모 여성 도서관⁴을 위한, 선교에 관하여 계몽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라와 모든 딸들을 축복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
3. 자카르도(Giaccardo) 신부가 1930년 11월 2일자로 마에스트라 에드비제 솔다노에게 보낸 편지로 증명된 한달 영신수련 과정이다. 그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학자께서 당신 자신을 위한 한달 영신수련을 하고 계시다. 모두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다.” 편지 20번에 따르면, 이 영신수련 과정은 10월 중순경 시작했다고 추정된다.
 4. 도서관 설립은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한출판협력자회, 5 (1919) 2 참조].

1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10월 27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딸들은 자기들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마에스트라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고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키에티보다 차리리 타란토를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밀라노에서 여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행여 딸들이 키에티에서 멈출까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하기로 해요.

제 생각엔 그들에게 선교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유익하게 머물기 위해 가정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팀이 힘들이지 않고 하루에 30리라를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알바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¹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침착하게! 선의로!

그들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바리에서 베루티Berrutti의 리체Lice와 밀라노에서 재고도서를 가져가서, 종교에 관한 서적도 판매하기를 바랍니다. ○○는 수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배치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편지18: 자필원고, 편지 10번과 같은 레터헤드(130×190mm)지 앞뒤에 토렷하지만 급히 쓴 글씨체로 적었다.

1. 마에스트라와의 대화를 암시한다.

저는 영신수련 피정을 합니다!

저는 급히 마에스트라 에드비제에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1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11월 3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훌륭한 영신수련 피정과 ○○의 착복식이 그녀에게 큰 성화와 자애심의 죽음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수도복은 우리의 의지와 자만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과 같습니다.

수녀님께서 편지에서 그 수녀님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것은 사건들의 진실성과 중대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사랑을 담아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수녀님이 바리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지 모르고, 또 앙코나의 일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영신수련 피정중입니다. 저는 우리의 천상 어머니께 당신을 비추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곧 죽음의 순간에¹ 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십시오.

또한 피렌체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둘 수 있나요?² ○○이 아직 한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은총과 많은 빛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천상 스

편지19: 자필원고. 레터헤드(130×190mm)지의 앞뒤에 또렷하게, 그러나 마지막에는 급하게 쓴 글씨체로 적었다.

1.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보는 것을 때때로 상기하는(편지 11번, 25번, 9번...) 것으로서, 분명 이냐시오의 영향이다.(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186번 참조)
2. 새로운 원장 임명을 촉구한다.

승님께서 저를 결정적으로 회심시켜 주시도록 간청해 주십시오!
오!

모든 딸들을 축복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2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0년 11월 17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이달 19일에 저는 성령강림의 다락방에서 거룩하신 성모님과 함께 저의 피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회심이 참되고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기도하시지요?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앙코나, 칼리아리, 피렌체의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블로냐에서 추기경님¹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레지오 에밀리아²의 대주교님도 정말 믿을 겁니다. 저는 민골리^{Mingoli}³ 몬시뇰께서 비서가 오는 대로 저에게 보내주기로 한, 로마의 승인서와 함께 청원서를 레지오에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로마 승인서를 아직 기다리고 있으며, 빨리 받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로마 승인서를 받는 대로 청원서와 함께 곧바로 레지오 에밀리아에 보낼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으로서 피렌체에서 새로운 대주교님⁴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교님 대리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인지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란토에 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곧 검토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기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 그것을 해

편지20: 자필원고. 이전 것과 같은 레터헤드(130×190mm)지에 또렷하지만 끝으로 가면서 힘겨운 글씨체로 앞뒤를 채웠다

1. 코르넬리아노의 나살리 로카(G. B. Nasalli Rocca, 1872-1952) 추기경.
2. 에두아르도 브레토니(Eduardo Brettoni, 1864-1915) 몬시뇰.
3. 여성 수도 단체 및 교육기관 담당 비서.
4. 엘리아 달라 코스타(Elia Dalla Costa, 1872-1961) 몬시뇰.

야 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거룩한 피정을 하면서 딸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는 피정을 위해 빨리 토리노로 갈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요? 마에스트라는 다음에 가실 테지요.

우리를 완전히 하느님의 자비에 내맡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 희망, 호평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수녀님은 예수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시나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축복하면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2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1년 2월 20일, 노바라

존경하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조만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베로나에 갈 것입니다.

여기는 마음, 의지, 사도직이 괜찮습니다.

○○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쪽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진보의 걸음은 하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는 일을 좀 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귀중한 재능이 전체적으로 유익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을 좋게 하십시오. 서원이 필요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¹ 교구 당국과 더 많이 교류함으로써, 활동과 사도직을 확장하십시오.

여기엔 정말 멋진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길 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조심하세요!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21: 자필원고. 일반 편지지(110x180mm) 앞뒤에 급하게 쓰여졌지만 읽을 수 있고, 또렷하다.

1. 이 제안은 서원이 비아 성 가우덴지오(via S. Gaudenzio) 6으로 옮겨져서 개축되었을 때인, 1982년에야 실현된다.

2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1년 6월 5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망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은 진실이며 모든 것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리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변할 겁니다!! 저는 모든 딸들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성바오로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겁니다!¹

팔레르모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하고 가난한 바오로딸들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메시나에서 대주교님²께 말씀드리기 위해, 수녀님은 학장님과 함께 가십시오. 대주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를 위해서도요.

편지22: 자필원고. 레터헤드(235×150mm)지 앞면에만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 단어에 얼룩이 있다.

1. 파시즘과 교황청 간의 논쟁 직후 1931년 6월 4일에 알바에서 보낸 회람지를 암시한다.
2. 안젤로 파이노(Angelo Paino, 1870-1967) 몬시뇰.

2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1년 6월 15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로마에서 저는 메시나의 대주교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리에서의 숙식이 끝나서 기쁩니다. 저는 그들이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성사 보러 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에게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초상화를 떼어 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성 요셉(액자)만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딸들의 분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알려주십시오.

저는 영신수련 피정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씁니다. 하지만 기도는 많이 하고 있으며, 축복을 보냅니다. 제 생각에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 이번 25일에 공동체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착복식은 매우 민감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담아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23: 자필원고. 레터헤드(230×145mm)지 앞면에만 뚜렷하지만 급한 글씨체로 적었다. 세번째 단락에 있는 여백에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세 분원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바리-팔레르모-살레르노.

2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1년 9월 29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몸은 아닐지라도 정신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다가와, 이 프리모 마에스트로를 천사처럼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희생에 합쳐 저의 희생을 봉헌합니다.

이제 저는 10월에 바치는 목주기도를 모두 다음과 같은 지향으로 바칩니다.

1. 영신수련 피정을 통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결실을 맺도록.
2. 딸들의 목적지가 죽음에서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3. 딸들의 건강이 더 큰 사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빛을 수녀님에게 주시기를 빕니다.

한 분 한 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24: 자필원고. 레터헤드(230×145mm)지에 작고 또렷하고 평평한 글씨체로 적었다.

2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1년, 알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많은** 수의 성바오로딸들을 다른 나라로¹ 보내는 것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조금 더디더라도 ... 그곳에서는 음식 만드는 사람들, 세탁하는 사람들, 가정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압니다. 곧 일본, 인도, 브라질, 아일랜드,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프랑스 등등 여러분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편지24*: 자필원고. 노트 조각(110×130mm)에 썼으며, 날짜와 서명이 없다. 상기시켜 주는 메모 같다. 처음에 우리는 이 메모를 편지 수집에서 제외시켰었다. 내용, 종이, 잉크를 검토해보니, 해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경우엔 상당히 중요한 메모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모를, 처음으로 수녀들이 브라질로 떠날 때인, 1931년에 배치하였다.

** 밑줄을 두 번 그었다.

1. 성바오로의 딸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 나라에 몇 년간 연속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브라질(1931년 10월 21일), 미국(1932년 6월 28일), 프랑스(1935년 6월 17일), 중국(1937년 1월 몇달 동안), 스페인(1946년 8월 25일), 일본(1948년 8월 6일), 포르투갈(1950년 10월 2일), 인도(1951년 8월 18일), 그러나 아일랜드에는 아직 진출하지 않았다.

2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2년 2월 4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분원의 성바오로딸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2월 1일부터 성바오로수도회에 「조르날리노*Il Giornalino*」, 「도메니카 일루스트라타*Domenica illustrata*」, 「부오나 빠롤라*Buona Parola*」, 「도메니카 펠리지오사*Domenica religiosa*」, 「보체디 바리*Voce di Bari*」 등등에 대해 지불해야 하고, 반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급해야 하는 부수를 아주 정확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공동체에는 보급되지 않은 부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경건한 제자들을 대신할 딸들을 몇 명 보내시면 로마에 경건한 제자들이 적어도 10명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개월간의 기도와 준비 끝에 일들¹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십시오.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25: 자필원고. 큰 종이(325×210mm)의 한 면에 적었다. 글씨체가 또렷하지만 갈수록 점점 힘이 들어가 있다. 내용들은 중간에 대시로 구분된다. 끝에서 두 번째는 긴 선으로 되어 있다.

1. 1932년 2월 1일에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이 일을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성바오로딸수도회가 크게 발전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1. 성령 - 수련기 - 규칙화 (수도회성에서 관면을 요구하지 말라는 권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목상을 잘 하십시오 — 개인적 관리 등등.

2. 면학: 그 과정²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좋습니다!

3. 애덕, 특별히 노인들에 대한 큰 사랑: 이것은 명령이요, 믿음이고, 감사며,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4. 나자렛 가정의 경건하며 근면한 침묵.

이틀이나 걸린 여행으로 저의 죄값을 치렀지요. ... 그래서 모두에게 선을 행할 수녀님의 아름다운 편지³를 오늘에야 저는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평화, 공덕, 선을 가져옵니다.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

여기에 ○○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너무 늦지 않게 로마에 오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2. 고등 면학의 첫 번째 과정을 암시한다.

3. 이 편지는 아직 찾지 못 하였다.

2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2년 2월 5일, 로마

존경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제가 돌려드리는 사본에 있는 그 목록을¹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바오로수도회에 귀속된 「성 가밀로S. Camillo」 7025부와 성바오로팔수도회에만 귀속된 4151부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순명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며, 여기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인, 삶을 쇄신하는 기간에 들어섰습니다.² 성바오로팔수도회는 떼데움을 부르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성바오로팔수도회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다면 4년 안에 정신, 학문, 사도직, 청빈의 꽃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회가 천상 스승을 위해 선택된 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심고 싹이 돋게 하신 화초가 자라고 피어나기를 빕니다! 또 필요하다면,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편지26: 자필원고. 비아 그로타빠르페타(via Grottaperfeta) 58이라는 로마의 주소와 비아 줄리아 208이라는 서원 주소가 있는 레티헤드(255×150mm)지 양면에 또렷하지만 힘겨운 글씨체로 적었다. 내용은 중앙에 있는 짧은 선으로 구분된다.

1. 성바오로팔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도서 재고 목록. 1931년 12월 6일자 회람지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다.
2. 편지25번에서 다루었던 성바오로팔수도회와 성바오로수도회의 입장에 대한 정리를 암시한다.

저는 마에스트라 아말리아에게 비전과 권고를 주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서류를 동봉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전례복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 때 할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가 설명했듯이 신중하게 자리 잡아가도록 저는 스클라스티카 수녀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것을 입을 것이고, 또 보낼 것입니다.

오늘 수녀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은총들은 인생에서 거의 가질 수 없는 크나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마에스트라 에드비제와 마에스트라 데레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에스트라 프란체스카를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두로 말하게 될 다른 사람도요. 제가 말할 때까지 피렌체에서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곧 여러분이 잘 일치해서 주님께 저를 위해 자비와 회심을 청해 주십시오. 모두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프리마 마에스트라를[sic] 축복하면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2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2년 3월 14일, 로마

존경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몬테피아스코네 교구가 성바오로수도회에 위임한 신문이 있는데, 그야말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제자들이나 젊은 이들이 그쪽에서 구독을 위한 순회 선교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구를 딸들에게 할당된 다른 교구와 조용히 교체할 수 있다면 ...

하지만 이것은 바로는 아니고 조금 후에 말입니다.

보체 디 칼라브리아(카탄자로)*Voce di Calabria (Catanzaro)*와 보체 디 몰리세(캄포바소)*Voce del Molise (Campobasso)*가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된 주교님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까?*

신문들이¹ 활기를 띠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단 두 뺨 떨어진 곳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힘, 미덕, 하느님을 소유합니다!

편지27: 자필원고, 로마의 레터헤드(235×150mm)지 한면에 꽤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 생각에 관한 것은 모두 다른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울임꼴로 부각시켰다.

1. 1926년 2월 26일에 자카르도 신부님은 성 바오로, 볼테라, 리에티, 아베짜노 및 몬테피아스코네의 교구를 위한 주간지 <라 보체 디 로마*La voce di Roma*>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간지와 그 발행부수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생각 속에 교구 주간지에 대한 대규모의 연속적인 계획을 탄생시켰다. (콜포, 「알베리오네 신부*Don Alberione*」, 알바 1974, p. 224 참조) 그 후로 로마의 성바오로딸들은 교구 주간지들의 저술 및 편집과 인쇄에 이바지했고, 교구에 있는 성바오로딸들은 보급에 관심을 두었다. 이 창안은 그것이 중단되던 1937년까지 이어졌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딸들을 축복하면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2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2년 3월 16일, [알바]

존경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편지를 늦게 보냅니다. 이번에도 기차 환승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행은 좋았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해들보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덕과 청빈의 덕을 더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든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곧 필요에 따른 지출을 줄이고, 사랑의 정신으로 수입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직의 영역을 확장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십시오. 양심성찰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규정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데도 양심성찰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필요합니다.¹ 한 분 한 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편지28: 자필원고. 줄이 그어져 있는 알바의 레터헤드(110×185mm)지 한면에
또박또박 확실하게 적었다.

1. 「사목 생활」, 8(1931) 229.

2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2년 3월 21일, [알바]

존경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저는 성바오로딸들이 교리를 아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대로 면학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딸들에게 영신수련 피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매달 코스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훈련을 많이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티토¹ 신부님이 자신의 보고서를 타바니² 신부님에게 보여주려고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서로 일치하도록, 마에스트라 아말리아의 보고서³를 티토 신부님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무척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수녀님께 은총과 위로를 주시길 빕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29: 자필원고. 레터헤드(225×140mm)지에 작지만 또렷한 글씨체로 쓰였고, 각 단락은 대시로 시작된다.

1. 티토 아르마니(Tito Armani, 1899-1980) 신부, 로마 성바오로수도회 원장.
2. 도메니코 타바니(Domenico Tavani FMC) 신부, 수도회성 고문.
3. 우리 보고서가 1932년 5월 7일자로 수도회성에 보내졌다. (Arch. Vicariato, Pos. 240 참조)

3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2년 11월 19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러한 허락을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서, 더 많이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사랑이 스승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서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제 알베리오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30: 자필원고. 카무치니(Camuccini)의 그림. 성바오로의 회심이 인쇄된 “우편 엽서” 뒷면을 또렷하고 과감한 글씨체로 채웠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 준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왼쪽에는 “하느님 말씀 그림”에 N. 30 - 성바오로수도회 - 알바라고 적혔다.

* 날짜는 하단의 서명 아래에 있다.

3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3월, 알바]*

존경하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어제 저는 토리노에 들렸습니다. 대주교님¹의 방문, 딸들, 사도직 등, 모든 것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녀님을 그로쎬토로 소임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선한 의지로 지내지 않는다면요.

이미 적은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는 자신을 위해 영신수련 피정을 하지 마시고, 성바오로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안내자로서 영신수련 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느님의 섭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옷을 입으려** 아주 천천히 가십시오. 작은 숫자지만 선택되었습니다. 마에스트로 자카르도를 좀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건강에 대해 편지를 두 번 썼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딸들을 축복한다고, 딸들이 많이 모이길 바란다고 하지만, 각 사람이 수도원에서 글을 더 자주 쓰기를 바란다고 수녀님께서 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31: 자필원고. 구에르치노(Guercino)의 성 토마스(S. Tommaso)의 불신을 재현한 “우편 엽서”(편지30번 참조) 앞면 전체에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각 내용은 대시로 시작한다.

* 생략된 낱자를 기입하였다. 왜냐하면 네 번째 단락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마에스트로 자카르도를 방문하여 그에게 소식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1933년 3월 11일자 편지32번에서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착복식을 의미한다.

1. 마우릴리오 포싸티(Maurilio Fossati, 1876-1965) 추기경.

3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3월 11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바오로딸들에게, 자신의 힘을 모두 소진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주님께 더 깊은 신뢰를 두라고 말씀하십시오. 또한 건강히 잘 지내야 합니다. 물론, 사도직은 수도회의 2차적인 목적으로서, 그들의 노력이며 직무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과 올바른 지향에 많은 결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의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에스트라 아말리아는 말라리아에 전혀 걸리지 않았습시다. …! 저는 천상 스승께서 앙코나와 그로쉴토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에는 확실히 신속하게 열리는 평의회가 필요합니다.

영신수련 피정은² 프리마 마에스트라 때문에도 성공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시간에 잘 경청한다면 큰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알바의 (제빵사의 딸인) 그 수녀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확고한 의지에 큰

편지32: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 앞면에 적었다.

* 이 지점부터 끝까지 왼쪽 여백에 적었다.

1. 당시 시행중인 회헌 245조에 따른, 지역 평의회의 구성.
2. 1933년 3월 5-13일까지 로마에서 했던 “끝나지 않은 수련”이다. “목적: 겸손과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테클라 메를로, 성찰노트 2. 성바오로 딸수도회 총원문서고)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수녀님께서 먼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3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3월 11일¹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를 위해 제노바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바오로딸수도회에 대한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결정적인 해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가 받아들이도록 맡겨드립니다. 그녀를 축복합니다.

비아 오스티엔세 사람들에게는 매도 증서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능한 공증인의 동석 하에 명확하게 처리하십시오. 잘 진행된다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걸친 사용권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바오로수도회 이름으로 등록하세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²에 대한 제 의견을 단언할 수 없지만, 저는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바오로딸들은} 대출, 손실된 자금, 연금, 거룩한 미사 직무 등등에 대해 큰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되는 이들을 거기에서 자고 먹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선교나 딸들의 공동체에, 알바에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영신수련 피정에 참석하며 동시에 성년을 지내러 로마에 오도록 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

편지33: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에 또렷한 글씨체로 앞뒤에 적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대시로 시작된다.

1. 같은 날에 쓴 두 번째 편지.
2. 1933년 성년에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을 할지 말지에 대해 그에게 문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

성바로팔들이 하숙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기에, 이것은 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저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저는, 어떤 수도회에서 행한 결과들도 보았는데,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3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3월 29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께

축원, 기도,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공동체에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소자들의 활동이 잘 설명되었길 바라고, 보조금¹의 결과도 그렇길 바랍니다. 곧 섭리의 한 가지 길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적어도 다른 두 개의 길이 이미 열렸다는 표시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열리는 문을 보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들렀었는데, 제 생각엔 성바오로딸들이 알바의 인쇄기*를 거기로 보내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훨씬 더 세세하고 정확한 계산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곧 저는 여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모든 걸음이 한층 더 천국으로 가는 것이길 빕니다! 모든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성바오로딸들을 축복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34: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 앞면에만 적었다. 두 번째 단락은 짧은 대시로 구분되어 있는 세 가지 다른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 생각은 왼쪽 여백에 쓰여 있다.

* 소형 인쇄기.

1. 장학금, 총금액의 이윤으로 사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성바오로수도회 학생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선한출판협력자회」지와 「사목생활」이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3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3월 8일, 알바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성바오로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 저는 성바오로수도회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제자들이 (여우 언덕에 있는) 딸들의 공동체에서, 거의 모두가 아주 빨리 잠을 자기를 바랍니다.

2. 방에 칸막이를 세워 12개의 작은 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부방도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회 수녀님들을 받아들이나요?}

3. 여기서 수련기와 고등 면학을 하게 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보내질 것입니다.

4. 성바오로딸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면, 무이자로 2년 동안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많은 이자가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바오로수도회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올해 750을 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체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빛을 청합시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35: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 양면에 적었다. 잘 읽혀지긴 하지만 글씨체가 날카롭다.

* 빨간색 잉크로 추가되었다.

3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8월 2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로마 수도원의 필요와 수입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마지막 편지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사도직은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위해 수도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데, 특별히 제본일 것입니다.

2. 서원들은 점점 활성화되고 더 배려되어야 합니다!

3. 책의 발행 부수는 보다 적어야 합니다.

4. 성경²이 외국으로,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 보급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프랑스어도 (보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딸을 그들의 마에스트라와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36: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 양면에 쓴 것으로, 잘 읽을 수는 있지만 글씨체에서 급히 쓴 흔적이 느껴진다.

1. 참조: 알베리오네, 1933년 11월 22일자 회람지.(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2. 1930년부터 알바의 인쇄소는 성경 인쇄로 바꿨다. 이탈리아어, 라틴어-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등 다양한 판형과 언어로 인쇄되었다. [참조: 「사목생활」 12월호(1931) 480]

3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8월 29일, 알바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하느님의 은총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율 준수는 수도원에서 첫째가는 필요성입니다. 각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제자들과 함께 일을 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¹ 평온하게 권위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은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곧 두 가지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가족적인 사랑인 질서를 함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면학과 선교를 위해서도 잘 준비하십시오.

여기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듯이 모두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추신: 특별히 병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산프레에 갓있는 데,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편지37: 자필원고. 레터헤드(200×140mm)지 앞면에 또렷하고 날카로운 글씨 체로 적었다.

* 왼쪽 여백에 나란히 적었다.

1. 성바오로딸수도회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는, 교회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성소와 카리스마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3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9월 9일, 알바

훌륭한 마에스트라께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로마에 있는 성바오로딸들이 모원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¹

알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전히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저에게 쓰신 바에 따르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 존재하는 만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신수련 피정을 축복합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38: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에 또렷하지만 급한 글씨체로 썼으며,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보다 줄 간격이 넓고 글씨도 크다.

1.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공동체의 색깔이 너무 달랐는데, 인적 교류로써 나아져야 했다.

3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9월 23일], 1933년, 알바

오늘 아침 저는 성녀 테클라를 기리는 미사를 집전했는데,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성바오로딸들 모두의 모든 필요와 성화
를 위해 봉헌하였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39: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에 또렷하고 큼직한 글씨체로 앞면
을 채웠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하단에 “1933”년이라고 적었다.

4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11월 13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로마에 계시는 동안 성경 보급을 위해, 특히 단체들과 본당 사제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본당 도서실을 개설하게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겨울이 좋은 때입니다.

우리에게 재고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곧 「성 안토니오 *S. Antonio*」, 「천상 스승 *Dirin Maestro*」, 「비오 10세 *Pio X*」, 「성 베드로 *S. Pietro*」, 「리나 노체티 *Lina Noceti*」, 「파비올라 *Fabiola*」,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소설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는 발행 부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독하는 시기임을 생각하면서, 이미 있는 것을 보급합시다[.]

영신수련 피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함께 모인 모든 딸들을 축복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0: 자필원고. 단순한 용지(145×220mm) 앞면에만 또렷하고 날카로운 글씨체로 적었다.

4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3년 11월 16일, 알바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아마 성바오로딸이 복음서와 신심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가을과 겨울에 각 가정에 한권씩 주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예약신청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체방문¹에 많이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1: 자필원고. 우편 엽서에 다음과 같은 표제가 인쇄되어 있다. 성바오로 수도회-인쇄사도직을 위하여, 알바.
첫 단락은 흘림체로 되어 있다.

1. (성체)조배의 시간.

4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4년 9월 24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성녀 테클라 축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영신수련 피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의 의견을 듣지 말고, 수녀님의 말을 따르라고 ○○에게 말하실거죠.

또한 저는 수녀님이 로마에 받아들인 과부에 대해 쓴 내용은 덮어둡니다.

아드리아해 가까이에 있는 여러 딸들에게 축복과 위로와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¹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달력²은 이미 인쇄되었고, 딸들에게 넘겼습니다. 자비, 사랑, 그리고 순명을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여기는 잘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2: 자필원고. 인쇄 사도직의 협력자회라고 되어 있는 레터헤드(220×240mm)지 앞면에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오른쪽 상단에 대각선으로 “로마 마에스트라 테클라”라고 적혀 있다.

1. 아드리아해의 공동체를 방문하라고 마에스트라 테클라를 초대한다.
2. 연말연시에 성바오로딸은, 선교용으로 (간행물과 함께) 성바오로회가 인쇄하고, 알바의 성바오로딸이 포장한 달력도 제공했다.

43. GDPH(“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약자) 1935년 3월 29일, 알바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에게

‘기밀서한’

1935년의 일사분기에 수녀님은 모원이 너무 궁핍하여 몹시 고통당하셨지요.

*{사실 우리는 굶욕, 엄청난 경비, 건강악화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녀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수녀님은 일반적으로 기도와 노동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수녀님은 지금 좀 기운을 상실했나요?

들어보세요. 모원에서도 수녀님이 요청한 모든 도움을 보낼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어음환**이 5분의 1로 줄도록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부활 시기에 있으니,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출이라든가, 약간의 자선금 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에게 미결제 금액이 조금 남아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바오로에게 매달립시다. 그리고 묵주기도로 전구를 청합시다.

요셉회 수녀님'들은 여러분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천국

을 바라봅시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3: 자필원고. 레터헤드(230×150mm)지에 쓴 손 글씨와 삭제 자국에서 알 수 있듯이, 글씨체에서 고통이 묻어난다.

- * 우리는 삭제된 문장을 그 중요성 때문에 본문에 삽입했다.
 - **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수표”를 삭제하고 다른색 잉크로 “어음환”이라고 썼다.
1. 요셉회 수녀님은 그들의 재산을 수도회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숙식과 생활 지원을 받았던 은인이다.

4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5년, 알바]*

월피정을 위한 세 번째 강의 자리에 공동체나 부서의 마에스트라가 혼화를 한다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구사항들을 다시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그 달에 대한 방침을 줄 것입니다. 곧 사도직과 가르침에 관한 것 만큼이나 정신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4: 자필원고. 노트 (맨 앞 또는 맨 뒤에 있는) 잘못 찢어진 백지(65×125mm)에 다소 불규칙한 글씨체로 쓰였다

* 날짜 생략됨. 하지만, 이전 편지들과 매우 유사한 내용, 잉크, 글씨체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1936년 이후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4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5년, 알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하느님의 영광과 수도회의 선을 위해 날마다 더욱 요구되는, 안정적이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방침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재무 담당 평의원” 마에스트라 데레사와 함께 규정에 따라¹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ㄱ) 상황(보고)의 대차대조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ㄴ) 사도직에서 제공되는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ㄷ) 청빈에 대한 올바른 경향, 신중함, 철저한 관리.

ㄹ) 어떤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원 등을 위한 방침도 잘 보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5: 자필원고. 이미 사용한 편지에서 잘라낸 종이(120x185mm)에 급한 듯하지만 또렷한 글씨체로 뒷면에 적었다.

* 낱짜 생략됨. 이 낱짜를 편지43번에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는 낱짜를 여기에 배치한다.

1. 회헌(1932년판) 302조 이하 참조.

4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7년 2월 9일, 로마

성바오로의 착실한 딸들*에게

저는 편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수녀님 자신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를 돌려보내길 원하신다면 서원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이 달 23일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에스트라 나자레나는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그녀의 계정서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들어 기쁩니다! 특별히 영혼을 잘 돌보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로써 다른¹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금자리와 성소자들을 갖게 될 것이며, 모원에 보답할 것이고, 유익한 사도직을 하리라는 것 등등. 일단은 빚을 모두 갚은 다음에 물건을 사십시오.

수녀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 저는 매우 기쁩니다. 곧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해서입니다!

모두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모두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6: 자필원고. 조각 종이(135×135mm) 한면에만 또렷하고 평평한 글씨체로 적었다. 본문은 중간에 대시로 나뉜다.

- * “착실한 딸들”이라고 수신자를 복수로 나타낼지라도, 편지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보내는 것이다.
1. 알베리오네 신부님과 자카르도 신부님의 어음에 담긴 말씀을 상기시킨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4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7년 5월 6일, 로마

좋은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영신수련 피정을 축복합니다. 저는 훌륭한 설교자들과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훈화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수녀님께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쓰셨는데 저는 모든 것이 사랑과 정의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은인들의] 주소를 양쪽에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직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소에 대해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¹ 여러분에게 성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수련 피정은 언제 끝나나요?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언제 돌아오시나요?² 거기에 마에스트라 필리피나³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빛과 은총으로 가득한 좋은 5월 되시길! 주교님⁴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47: 자필원고. 상단에 표제가 있는 얇은 종이(135×105mm) 한 면에 또렷한 글씨체로 적었다. 마지막 생각은 왼쪽 여백에 자리한다.

1. 성바오로딸 일부가 새로 시작하는 선한목자예수수녀회로 옮겨간 것을 암시한다.
2. 1936년 11월 11일부터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로마에 거주하였다.
3. 마에스트라 필리피나 바다넬리는 폐결핵 회복기의 환자로서, 로마에 자리를 마련했다. 1938년 6월 19일에 사망했다.
4. 루이지 라비트라노(Luigi Lavitrano, 1874-1950) 추기경.

4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7년 9월 23일, 로마]*

성바오로수도회는 오늘 성바오로딸들에게 많은 테클라가, 모든 테클라가 있도록 영광스러운 성녀 테클라께 청합니다. 스승님의 성체적 성심을 위로하고,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위안이 되도록 말입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금년에 특별한 은총과 공로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청합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48: 자필원고. 알바에 있는 그림 사도들의 모후를 재현한 그림 옆서. 뒷면의 왼쪽 상단에 “성바오로수도회-인쇄 사도직을 위한 수도회”라는 표제가 있다. 하단에는 다음의 메시지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온전히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단체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 예수님의 신비체를 이해한다.”-알베리오네 신부. 옆서 전체 너비를 꽉 채운 글씨는 정성들여 평평하게 쓰였다.

* 날짜 생략됨. 하지만 이 본문은 1937년 10월호의 첫번째 내부 회람지에 게재되었다.

4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7년 10월 7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저는 거룩한 결실들을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바오로적 정신* 안에서 실천적인 것들, 단순한 것들 말입니다.

떠나기 전에 제가 생각해낸 그 마지막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께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

기도를 청합니다! 마에스트라 브란카토'가 그것을 할까요?
축복을 보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49: 자필원고. 사도들의 모후 그림 엽서 하단 오른쪽에 또렷한 글씨체로 쓰인 메시지. “사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도들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를 도움으로써 이 상을 받으십시오.” - 알베리오네 신부.

* 단어 위에 잉크 자국이 있다.

1. 신원을 알 수 없다.

5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7년 10월 9일, 로마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그들은 고해성사를 위해 예수회 신부님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카타니아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3일 정도요.

우리에게겐 여러 가지의 필요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합시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 수녀원을 좋아하실 겁니다.[1]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를 청합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마에스트라 브란카토와 부스카이노²씨는 좋은 일을 할까요?

편지50: 자필원고. 사도들의 모후 그림 옆서에 또렷하고 쪽고른 글씨체로 쓰였다.

* 왼쪽 여백에 적혀 있다.

1. 또 다른 창립에 대한 생각일까? 이 시점에서 적어도 그 회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일 년 후에 그는 마에스트라 젤마 잔니니와 만나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으로 그는 성녀 젤마회 수녀들의 탄생과 발전을 동반했다. [참조: 그라틸리, 「알베리오네 신부. G. 잔니니 수녀, 어머니이신 젤마 안에서 *Don Alberione, Madre G. Giannini, in Madre Gemma*」(Lucca 1985) 9 이하].
2. 신원을 알 수 없다.

5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7년 10월 12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위험에 처한 그 수녀님을 위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말했고, 쓴 것에 대해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게 할 그런 일¹에 대해 주님께서 수녀님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신 것에 대해 저는 기쁩니다.

이 영신수련 피정²에서 받은 모든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애심의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릴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을 온통 차지하실 것입니다.

영적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과 지혜롭고 실천적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면학에 마음을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편지51: 자필원고. 레터헤드(225×140mm)지에 2단으로 적었는데 각각 10cm 씩이다. 처음 두 단락 앞에는 대시가 있다. 또렷하고 평평한 글씨체로 쓰였다.

1. 어쩌면 앞의 편지(50번)에 있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 수녀원”을 언급하는 것일까? 아니면 선한목자예수수녀회의 창립을 언급하는 것일까?
2.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1937년 10월 5-13일까지 팔레르모에서 했던 영신수련 피정 후에 창립자에게 제출한 영적 계획에 대한 답이다. “더 큰 믿음, 더 큰 희망, 더 큰 사랑 그리고 죄의 고통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과의 더 큰 일치.”(테클라 메를로, 성찰노트, 3, p.49. 성바오로팔수도회, 총원문서고 B3)

축복하며 기도를 청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5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9년 2월 16일, 로마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지 않다면, 알바에 머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는 평화, 받아들임, 훨씬 더 많은 공로를 청합니다.

모두에게 인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의 자선을 간구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52: 자필원고.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시는 예수님을 나타낸 그림 옆서 뒷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루카 7,16)

중앙에 성바오로수도회 문장이 있다.

5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9년 6월 10-12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위하여

요즘 저는 다음의 것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성바오로딸들의 단일 가족 안에 세 부분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그 일의 수행을 맡긴다는 것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가지게 될 것이며 ... 그것을 수행하게 되면¹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겨움이 덜하면 일을 더 많

편지53: 자필원고, 단순한 종이(110×150mm) 한 면에 쓴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불규칙적인 글씨체로 적었다.

* 날짜가 생각되었는데 마에스트라 테클라(각주 참조)의 답변에서 추정하여 적었다.

1.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맡겨진 이 역할에 대해,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이미 1938년 성탄 회람지[참조: 내부 회람지, 11-12월호(1938) 첫번째/1]에서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그녀의 단순성과 순응성으로 수도회의 실제상황을 표현하면서 짧은 편지에 답한다. 우리는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여기 신는다. 우리는 편지 내용에 관한 것인지 혹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참석한 평의회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말씀했던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 사도직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에게 큰 선을 행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목숨을 희생시킨다 해도, 저는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 1)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작 때처럼, 구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립니다. 분열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 2) 지금 세 부분의 사도직을 지닌 하나의 가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세 수도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천국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
- 3) 이미 지금, 평화와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4) 상황들을 서면으로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두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5) 일에 관해서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도직 장상들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 번, 어떤 이들은 한달에 두 번 씩입니다. 제 생각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도회 밖에 있는 것 같아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신부님께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저의 보잘 것 없는 의견을 표현하니, 이제 제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1939년 6월 13일, 로마)

페데리코 무짜렐리 신부님이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우리의 견해로는—“세 부분”으로 구성된 단일 수도회의 공식화는 카리스마적이기보다는 더 교회법적인 제안 같다.(참조: 무짜렐리, “기억”, 1940년 5월 18일,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5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9년 6월 14일, [로마]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주님께서는 딸들로 바오로가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많고 많은 영혼들이 성화를 이루러 오도록, 그리고 사도직으로 예수님을 주러 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실천적인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세 부분의 사도직을 대표하는 세 수녀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분리되지는 않지만) 더 뛰어난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든 수도원을 방문하십시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먼저 영혼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 일반적인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세 부분의 사도직을 맡은 세 명의 수녀들은 실무 책임자이며, 평의원이고, 보고자이기도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를 청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54: 자필원고, 레터헤드(235×150mm)지의 10cm공간 절반에 적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내용이지만 무난하게 잘 읽힌다.

1.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전한 내용에 대한 답.(편지53번의 각주 참조)

5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9년 9월 22일, 로마

성바오로딸들 모두는 성녀 테클라께 천상의 지혜와 후덕함과 내적 정신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녀 테클라는 은총에 온순하였고, 믿음으로 충만했으며, 시련에 강했고, 매우 섬세한 양심을 지니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미덕과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얻어주시길 빕니다!

저는 그것들과 함께 주님께 충실한 이들이 지니는 면류관과 상급을 기원하고 기도하며 희망합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55: 자필원고, 레터헤드(220×140mm)지 상단 표제의 중앙에 성바오로수도회 문장이 있다. 또렷하고 평평한 글씨체로 쓰였다.

1. 자필원고는 왼쪽이 잘려 있고, 두 번 접힌 부분이 있다. 우리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그것을 성찰 노트에 끼어 넣기 위해 가장자리를 자르고 접은 것이라고 추정한다.

5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39년 9월, 로마]*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디자인 학교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신학자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만일 디자인만을 위해 혹은 거의 그것만을 위해 두 달 동안 학교에 다닌다면¹ 저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수녀님께서는 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수녀님에게 주시길 빕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56: 자필원고, 서로 보완하는 두 장의 카드. 첫 번째는 단순한 종이(110×140mm)에 크고 과감한 글씨체로 썼고, 두 번째는 레터헤드(235×150mm)지에 첫 번째보다 덜 크지만 과감한 글씨체로 썼다.

* 두 카드 모두 날짜가 없다. A. 발디 수녀님이 디자인 수업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날짜를 근사치로 복원하였다.
1. 두 명의 수녀가 마리오 바르베리스 교수에게 배우러 갔었고, 또 다른 두 명의 수녀가 G.B. 콘티 교수에게 배우러 갔었다.

5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0년 6월 8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의 신성한 오아시스를 지냈습니다. …[:] 이제 우리 계획들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에스트라 프란체스카의 위로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는 선한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녀의 … 고통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는 선하신 성자에 대해 썼습니다.

알바에서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모두를 격려하면서, 성바오로딸의 모든 수녀에게 잘 경청하신다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스승이신 주님은 입회허락과 서원 등등에 있어서 훨씬 더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세토¹ 몬시놀께서도 여러분의 선을 바라면서 저에게 그것을 여러 차례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훌륭한 걸음을 잘 내디뎠습니까!?

알바에서는 청빈의 측면에서 특별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마에스트라 데레사는 협력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내어 맡깁니다. 이 달에 성바오로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편지57: 자필원고. 레터헤드(225×145mm)지 앞면에 2단으로 작지만 잘 읽을 수 있는 글씨체로 적었다. 첫째 단의 내용은 중간에 대시를 사용하여 구분하였고, 두 번째 단은 대시가 단락 앞에 있다.

1. 파세토(E. Pasetto, 1871-1954) 몬시놀은 카푸친작은형제회 회원이며, 수도회성 비서관이다.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피정자들과 그들의 영적 계획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저는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없는 동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여기를 많이 도와주셨음에 대해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5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1년 6월, 로마]*¹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숨은 삶에 대한 바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수자의 고독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직책에서 비롯된 일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일치된 지성, 의지,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이끌리도록 하십시오. 곧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 주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집착이 없다면 영혼이 곧장 하느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집착을 끊어버립시다.

수녀님은 훌륭한 길 위에 있습니다. 주님을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만을 바라고, 오직 그분 안에서 쉬게 될 때까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하여 점점 더 걸어갑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58: 자필원고. 상단에 표제가 있는 얇은 종이(140×110mm)에 또렷한 글씨체로 쓰였다.

* 날짜 생략됨. 잉크와 글씨체가 편지59번과 매우 비슷하다. 때문에 이 편지를 여기에 배치하였다.
1. 편지58번과 59번의 내용이 연결된다. 곧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숨은 삶에 대한 갈망을 느끼며, 수도회의 많은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과 주님의 은총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녀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다른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5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1년 6월 17일, [로마]

좋은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존경하올 신부님¹은 제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를 떠나셨습니다.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알바에서 기꺼이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만나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느님의 승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편에서는, 수녀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이야기했던² 바가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성바오로딸수도회에 위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녀님의 성소에서, 수녀님의 선을 바라며, 양심에 따라 이것을 말하면서, 저는 그 어느 것도 명령하거나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 죽음의 순간에 처해 있다면 저는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수녀님께 같은 것을 말할 것 같고, 또 같은 조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녀님께서 수녀님의 성소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성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언을 따르면 몇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수녀님은

편지59: 자필원고, 2단으로 된 레터헤드(225×145mm)지. 잉크가 진하지만 잘 읽힌다. 두 번째 내용은 단락 시작 부분을 대시로 시작한다.

1. 알레산드리아의 안젤리코 신부. 카푸친작은형제회 회원. 1941년 1월, 수도회성에서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사도적 방문자로 임명하였다.[내부 회람지, 5월-6월호(1941) 1 참조]
2.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이전 편지를 언급하는 것 같다.

최대의 이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녀님의 성소를 살아가며 그 성소 안에서 교회에 잘 봉사하게 되고, 교회의 입맞춤과 하느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영신수련 피정의 이 시기에 하느님의 자비를 저에게 얻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축복 안에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6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1년 8월 8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알바에 머무시는 것이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수녀님의 정신 건강에 좋고, 수도회에도 유익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과 일치하고, 기도를 더 잘 하는데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¹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특별히 청합시다.

○○는 프랑스에서 돌아왔겠지요? 유익한 방문이 되었겠지요?

저는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내적 치료에 더 마음 쓰고 있습니다.²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되겠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바오로딸들 모두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스승예수의제자들을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60: 자필원고, 110×65mm 크기의 노트 한 장에, 작지만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다.

1. 1941년 7월 12일에 알베리오네 신부와 자카르도 신부가 성 비오 12세를 알현했을 때 바오로가족 모두를 위해 “내면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라.”고 한 그분의 권고를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부 회람지, 1941년 7월 1호 참조)
2.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러 해 동안 며칠씩 나폴리에 가곤 하였다. 거기에서 성바오로딸들 공동체에 머물며 아침마다 카스텔라마레 디 스타비아 (Castellamare di Stabia)에 가 온천수 치료를 받았다.

6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1년 8월 9일 기차에서*

저는 한층 더 친밀한 기도와 영적 단순함을 주십사 주님께 청하시라고 수녀님에게 여러 번 조언하였습니다.¹

이제 이 특별한 목표를 지향하며 영신수련 피정을 지도하는 것이 제 의무인 것 같습니다.²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수녀님의 영적 유익을 위해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권고해 줄 수녀들이 참여할 만한 적당한 코스가 어느 코스일지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들일 수도 있고, 선한목자에수녀회 수녀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특별히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자매들이 정신적으로 멈춰 선 상태인 것 같고, 또 여러 명은 그냥 땅만 디디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서둘러, 기쁘게 나아

편지61: 자필원고, 110×65mm 크기의 앞 편지와 같은 노트 종이에 적혀 있다. 작은 글씨이지만, 또박또박 써서 읽기에 수월하다. 수신인이 없지만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쓴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맨 아래에 적혀 있다.

1. 이 내용은 1941년 10월 11일자로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보낸 회람지를 통해 모든 성바오로딸에게 전달되었다.
2. 알베리오네 신부는 “내면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라.”는 교황의 권고를 수녀들이 구체적으로 살기를 바랐으며, 같은 해 10월에 한 영신수련 피정의 한 코스를 통해 이를 전했다. (참조: 알베리오네, 「영신수련 *Esercizi spirituali*」, 1941년 10월, 로마)

가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을이면 될까요? 봄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6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2년 1월 1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수녀님이 바라는 은총¹은 아주 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총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가 아주 많이 기도해야 하고 내적·외적으로 극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는 대로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로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수도회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니깐요.

그동안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교황님께 드릴 청원서를 준비하십시오. 청원서 준비는 수녀님이 하셔야 할 일이니깐요. 청원서에는 평의원들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편하신 때에 알바에 머무셔도 됩니다. 머무시면서, 경제적인 분야가 보고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 세 부분 사도직 사이에서 (없으리라고 제가 믿는 것처럼) 반목과 대립은 없는지 보십시오.

당연히 한 사도직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아니 세 사도직 모두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요.

축복을 전하며.

직책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사람을

편지62: 자필원고, 220×140mm 크기의 종이에 레터헤드가 찍혀 있으며, 가로로 각각 9.5cm 넓이의 2단에 선명한 글씨체로 쓰였다.

* 레터헤드 위에 한 번, 같은 줄 오른 쪽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찍혀 있다.

1. 교황청 승인을 의미한다. 청원서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1942년 1월 5일에 수도회성에 전달하였다.

망치는 것은 직책에 대한 잘못 이해된 외적인 평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포용한다면 은총에 걸맞는 충실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진보할 것임을 잘 알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축하를 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63.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1942년 8월 17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성바오로딸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이 편지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소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수도회에 하느님의 강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 씁니다.¹

성바오로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출판 사도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두의 의무로 여기면서 성바오로딸들, 스승예수 의제자들, 선한목자예수회 수녀들, 이 세 그룹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이 의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바오로딸들 그룹에게는 출판 사도직이 그들의 유일한 사도직이므로,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신학교 기숙사 봉사, 가톨릭 액션 관련 업무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성바오로딸들은 회헌이 규정한 대로 종교학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자격증 시험은 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되었기에 이제야 오류와 유혹이 점점 더 퍼지고 있음을 봅니다. 신학과 사도직 관련 시험이 바로 여러분이 등록해야 할

편지63: 타자 원고. 로마의 레터헤드가 찍힌 235×295mm 크기의 종이에 아무런 기교없이 내용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체를 사용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모토와 날짜, 서명을 직접 써 넣었다.

1. 보고서 작성자는 아마도 교황청 총검서관(procuratore generale)이던 성바오로수도회 페데리코 무짜렐리 신부인 듯하다. 그는 성바오로딸수도회가 교황청 승인을 받는 과정을 함께했다.

자격 시험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말입니다.

자격 시험은 선한목자회의 몇몇 수녀님들만 치러야 합니다. 스승예수의제자 수녀님들이 성물 분야에서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권고하는 이 규정을 잘 읽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은 회칙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로와 은총의 샘인 거룩한 당신 뜻을 통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6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2년 성녀 테클라 기념일, [로마]*

인사와 기도를 전합니다! 나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테클라 성녀를 기억하며, 수도회가 발전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고 영신수련 피정을 훌륭히 마치는 데 참 적당한 날인 것 같습니다. 피정을 마치며 다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성바오로딸들 모두가 바라는 성물 센터가 되도록 잘 조연하고 지시하십시오.

2) 성바오로딸들이 성물을 구입할 때는 모두 이 성물 센터만 이용하도록 알려주십시오.

테클라 성녀와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세 분야의 사도직을 하고 있는 성바오로딸들 모두에게 전하는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천상 스승께서 수녀님의 모든 걸음에 빛과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 걸음을 성화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축복을 보내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64: 자필 원고, 145×230mm 크기로 자른 평범한 종이, 한 면에 선명하지만 힘겨운 듯한 글씨체로 쓰였다.

* 수신처처럼 상단 선 가운데에 적혀 있다.

6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3년 3월 19일, [로마]*

오늘 아침 미사 때 성 요셉께 기도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곁에 온유한 성바오로딸들이 많이 에워싸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새 서원자들과 유기서원자, 종신서원자들 모두 큰 상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수도생활을 기쁘고 관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65: 자필 원고, 145×85mm 크기로 자른 종이에 침착하고 선명한 글씨체로 짧게 썼다.

* 평소와 달리 왼쪽에 적혀 있다.

6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4년 성 요셉 축일, [로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통 중에 있는 성바오로딸들의 기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의 해年이면서도 위로의 해가 되기를 빕니다.¹ 오늘 아침에도 새 서원자들이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도 수녀님을 그렇게 에워싸며 함께할 수 있겠지요! 영원한 축제를 지내도록 말입니다. 성바오로딸들 모두를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축복을 보내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66: 자필 원고, 손으로 100×175mm 크기로 자른, 대리석 무늬 종이에 침착하고 선명한 글씨체로 쓰였다.

* 서명 아래, 왼쪽 맨 밑에 적혀 있다.

1. 이때는 전쟁 시기(1040-1945년)다. 당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로마 공동체의 웅색한 형편에 전쟁의 공포와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견디어 내는 것 말고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다른 수녀들에 관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6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5년 8월 11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수녀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바오로딸들에게, 특히 로마에 있는 수녀님들에게 내려 주실 모든 유익한 선물에도 감사드립니다.

연피정을 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내일 미사와 묵상 때 수녀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로타페라타¹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하면 집이 도로에 너무 가까워진다고들 하는군요. 대신 (베란다에 있는) 후면 부분을 두 배로 늘리면 빌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들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공동체도 가보았습니다. 모두 책에 대해서 말하더군요. 수녀님들 모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수녀님들은 적어도 일 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쉬어야 할 듯 보였습니다. 어려움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말입니다!

사도의 모후 성전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투병중인 성바오로딸들이 제가 보내는 회람지²를 읽었기를 바라며, 우리

편지67: 자필원고. 레터헤드가 찍힌 150×115mm 크기의 종이 앞뒤에 침착하고 또렷한 글씨체로 쓰였다.

1. 그로타페라타 공동체의 집을 저술가와 학생 수녀들을 위해 확장하고자 하였다.
2. 1945년 7월 4일자 회람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로마의 사도의 모후 성전을 위해 고통의 어머니께 바치십시오.”

의 아름다우신 모후시며 어머니를 아주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온천수 치료를 하라고 권유하신 것이 영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³ 지금 로마에 와보니 사우나가 유행이네요.

성바로오딸들 모두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축복을 보냅니다!

「작은 별들 *Stelline*」⁴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칼라브레시 수녀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항구하게 나아가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3. 알베리오네 신부는 관절 통증을 겪고 있었다.

4. 성바로오딸수도회 칼라브레시(M.C. Calabresi) 수녀가 쓴 어린이 책.

6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5년 12월], 로마**

저술가들의 집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면 성바오로딸들 모두
에게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 드림

편지68: 자필원고. 105×150mm 크기의 종이를 찢어서 강조하듯 선명한 글씨체
로 썼다. 서명은 머리글자로만 돼 있다.

* 정 가운데 상단에 적혀 있다.

** 낱짜 생략됨. 이 시기는 그로타페라타에 “저술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마
무리 작업을 하던 때이므로 낱짜를 이렇게 추정해 써넣었다.

6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5년 12월 25일, [로마]

존경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당신의 작은 손을 수녀님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수녀님의 영혼에 빛과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맨 처음 누운 요람은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성심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첫 구유였습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관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수녀님의 마음도 성모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훌륭한 구유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보내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69: 자필원고, 레터헤드가 찍힌 150×115mm 크기의 종이 한면에 침착하고 또렷한 글씨체로 쓰였다.

* 레터헤드 위, 제일 왼쪽에 치우치게 쓰였다.

** 수신인 바로 다음에 쓰였다.

7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6년 9월 22일, [로마]

좋은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테클라 성녀*께서는 올해 당신과 어울리는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성녀는 성 바오로께 더욱 신심 깊었던 성인들¹ 가운데 한 분으로 알바에 모셔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녀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바오로딸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성 바오로를 본받고, 어떻게 그분께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사도직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세 가지 기도와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1) 바오로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십시오.

2) 외국에 나가 있는 성바오로딸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바오로 딸은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치하십시오.

3) 신심을 깊이는 성전이기도 한 사도의 모후 성전 건립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70: 자필원고. 레터헤드가 찍힌 150×115mm 크기의 종이에 또렷하고 정성들인 글씨체로 쓰였다. 마지막 줄과 서명은 남은 공간 안에 들어가게 쓰느라 애쓴 흔적이 보인다.

* 수신인과 같은 줄에 썼다.

1. 1945년 알바에 있는 성 바오로 성전 중앙 제대 위에, 카라라(Carrara)에서 나는 흰 대리석으로 제작한 〈성 바오로의 영광〉이 놓여졌다. 그 작품은 같은 해 12월 7일에 축복받았다. 성 바오로 주변에 성 티모테오와 성녀 테클라, 성 루카, 성 요한 크리스토포, 몬시뇰 프란치스코 레, 알베리오네 신부가 그려져 있다.(참조: 「인쇄 사도직 협력자회」 1946년 1-2월 101호)

7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6년 12월 24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우리의 모후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당신의 사도직을 통해 오늘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수녀님의 두 팔에 받아 안으십시오. 그분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더는 혼자 계시지 않게 하십시오. 날마다 애뜻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다니십시오.

큰 축복을 보내며 기도합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71: 자필원고. 레터헤드가 찍힌 115×90mm 크기의 종이에 또렷하고 정성 들여 널찍널찍하게 쓰였다. 신뢰에 찬 친밀감이 가득한 카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아랫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잘라낸 다음, 양심성찰 노트에 넣기 위해 접었다.

7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7년 1월 18일, 로마]*

좋은 엄마는 아빠께로 가셨습니다!¹ 공로도 함께 쌓을 것이고, 상급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냈던 수많은 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보답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레고리오식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인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레고리오 미사는 임종환이를 위하여 30일 동안 바치는 미사로서, 교황 대 그레고리오 때 봉헌하기 시작했다-역자 주)

저는 열린 이 여러 무덤 앞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리하시는 데 장애물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수도 가족 모두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인사드립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72: 자필원고. 레터헤드가 찍힌 115×170mm 크기의 종이를 찢어서 적었다. 글씨는 힘들게 쓴 것 같지만 또렷하다.

* 날짜 생략됨. 빈첸차 메를로(Vincenza Merlo)의 장례식 기념품을 통해 알게 되어 적어 넣었다.

1. 메를로 에토레(Merlo Ettore)는 1941년 3월 9일에 선종하였다.

7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7년 9월 22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저는 여기에서 테클라 성녀를 기억하며 거룩한 미사를 사흘 동안 봉헌하고 있습니다.¹ 성 바오로께 신심 깊었던 성녀가 당신의 정신을 우리도 얻게 하시고, 당신이 아셨던 교회정신을 우리도 본받아 금년에 천상 스승께 바치는 신심 미사를 승인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² 사도의 모후 성전만큼이나 이 은총도 간절히 청합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수녀님의 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폼페이 목주기도의 동정녀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73: 자필 원고, 110×175mm 크기의 평범한 종이에 침착하고 또렷한 글씨체로 쓰였다. 내용은 여러 개의 대시(—)로 구분돼 있다.

* 왼쪽에 사선으로, 밑줄 친 상태로 적혀 있다.

1. 성바오로딸들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한동안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바쳐주기를 바랐다.
2. 천상 스승 대축일의 승인은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 천상 스승 관련 고유 전례의 첫 미사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로마 사도의 모후 대성전에서 1959년 1월 11일에 집전하였다.

7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7년] 마리아의 모성 기념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은 그로타페라타에서 아직 한 주간을 더 머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 치료요법을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님 손에 맡기시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능하다면 마에스트라 이냐치아와 그로타페라타에 들르겠습니다. 콜리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묵주기도를 하면서 계속 신뢰 속에 머무십시오.

알바노¹를 방문하는 것은 늘 좋은 일입니다.

제가 갔을 때 수녀님들이 많이 회복되고 다 나왔기를 바랍니다. 성전²과 제게 필요한 많은 것을 위해서도 수녀님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보내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74: 자필 원고. 145×95mm 크기의 평범한 종이에 천천히 토박토박 쓰였다. 편지의 날짜를 “마리아의 모성 기념일”, 곧 10월 11일로 적었다.

* 그로타페라타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함께 지낸 스파다(N. Spada) 수녀가 1947년으로 연도를 추가해 적어 넣었다.

1. 알바노에서는 환자 수녀들을 위한 첫 공동체 집을 건축하고 있었다.
2. 로마의 사도의 모후 성전을 가리킨다.

7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8년, [로마]

아주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지성에 빛이 되시고, 위로와 내적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수녀님의 영혼 안에 계속 살아 계신 그분의 현존을 보다 잘 느끼시기를 빕니다. 수녀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그분을 느끼십시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75: 자필 원고. 손으로 위쪽 부분을 자른 노트 종이에 적혀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파란 색 볼펜으로 써 보낸 종이의 빈 공간에 썼다. 글씨는 크고 힘이 있으며 아주 또렷하다. 손으로 쓴 원본에는 여백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표시한 별표가 있다.

* 상단 가장자리에 적혀 있다.

1.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영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것 —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온전히 신뢰할 것 — 실천사항: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것.”

7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8년 4월 4일, ** [로마]

삶은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자연적 삶은 더 큰 선물입니다. 살리체의 성모 마리아 성당Chiesa¹에서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선물과 축복이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성바오로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76: 자필 원고. 성바오로수도회 - 비아 그로타페르페타 58-로마 총원 레터헤드가 찍힌 105×145mm 크기의 우편엽서에 또렷하고 널찍널찍한 글씨로 썼다. 두 가지 내용이 짧은 선으로 구분돼 있는데, 위의 첫 내용은 일부러 좀 더 공간을 넓게 차지한 듯 보인다.

* 상단 중앙에 적혀 있다.

** 왼쪽 아래, 서명 위에 적혀 있다.

1. 문장이 애매모호하다. 어린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어느 날 포사노의 살리체에 있는 성 마리아 본당(parrocchia) 소속 산 로렌조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은 본당이 된 산 로렌조 성당에는 당시 세례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시절 본당 신부였던 페레로(G. Ferrero) 신부가 서명한 세례성사 확인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본당(parrocchia)을 지칭하는 데 성당(chiesa)이라고 쓴 것일 수도 있다.

7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8년 성녀 테클라 기념일, [로마]*1

테클라 성녀가 수행한 모범의 사도직이 “신앙의 열정과 삶의 성화”라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활기찬 신앙의 모범과 거룩한 삶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미지근한 이들을 불타오르게 하며, 선한 사람들을 성화시켜 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느님의 힘이며, 인간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은, 노여움에 찬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늘나라에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웃에게 좋은 표양이 되는데, 삶에서 출발하여 삶으로 전하는 강론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땅에서 표양을 보인 사람은 죽어서는 크나큰 즐거움을 맛보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축복과 인사를 전하며,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77: 자필 원고, 95×135mm 크기의 사도의 모후 그림을 찍은 사진 뒷면에 또렷하고 정성스럽게 쓰였다.

* 약어(JMJP)와 연도는 두 개의 짧은 선으로 구분돼 있다.

1. 편지의 내용은 1948년 「사도의 모후」 회람지 10월 1호에 실렸다.

7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9년 1월 14일, [로마]

좋으신 마에스트라 테클라께

너무 늦게 답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언제나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예수님이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서 오로지, 늘 주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통해 알려 주실 것입니다!¹

알찬 새해를 보내시도록 축복을 보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78: 자필 원고. 레터헤드가 찍힌 150×120mm 크기의 종이에 분명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글씨체로 썼다.

* 이름 바로 다음에 이어서 썼다.

1. 영적 보고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카드다. 이런 유의한 조언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영적 여정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7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9년 성 요셉 축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착실한 바오로인으로서 얻게 될 보상을 받을 만하십니다.

요셉 성인께서 모든 공동체를 지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성소자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빕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79: 자필 원고. 기록하신 성체성사의 성모 마리아 모습이 그려진 상본 뒷면에 또렷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글씨체로 쓰였다.

* 서명 아래에 적혀 있다.

8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9년, * 도쿄**

아주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계획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총을 얻기 위해 수녀님을 내어드리십시오.¹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0: 자필 원고. 1949년에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영적 계획을 쓴 노트 종이 뒷면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적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검정색으로 쓰고, 알베리오네 신부는 파란색 잉크로 썼는데 큼직한 글씨에서 힘겨움이 배어나오지만 잘 읽을 수 있다.

* 볼펜으로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썼다.

** 부드러운 연필로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썼다.

*** 상단 가장자리에 적혀 있다.

1. 알베리오네 신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적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영적 계획: 모든 것에 앞서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찾을 것. 늘 주님과 의일치 안에 살 것. 예수님과 마리아를 온전히 신뢰할 것.

기억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전부’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 말과 일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만을 찾을 것.

실천 사항: 아주 작은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흠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분께 다다를 수 있을 만큼 큰 신뢰로 힘을 낼 것.

모든 것을 거룩하신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의 친구로, 마리아와 함께 할 것.”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B3)

8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9년 5월 30일, 도쿄

늘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언제나 거룩하신 마리아의 망토 아래에 머무십시오. 늘 사도 성 바오로를 따르십시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1: 자필 원고. 십자가에서 내린 아들을 양팔에 안고 있는 성모님 성화가 있는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글씨는 매우 또렷하고 의욕이 넘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성화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여기 네가 한 일이 있노라. 모두 너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과 마리아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맨 아래에 날짜를 적었다.

8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9년 9월 22일, 마사 마르타나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내일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위해서 성녀 테클라의 전구를 청하는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성바오로딸 수도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도 많아지고, 재산도 늘어나고, 필요한 것도 많아지고 있으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합시다.

모든 성바오로딸이 언제나 하늘나라의 지혜를 추구하고, 스승 예수님과 더욱 일치하며, 더욱더 열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천상 화관은 물론 새 진주와 새로운 광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2: 자필 원고, 110×140mm 크기로 자른 종이에 또렷하고 섬세한 글씨체로 적혀 있다.

* 왼쪽 상단에 사선으로 적혀 있으며 밑줄이 쳐졌다.

8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49년 10월 24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님 한 명, 예를 들어 마에스트라 루이지나¹ 수녀님이 올해 켄차노에 있는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님들이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알바노에서는 월요일에 켄차노에 갈 수 있을 텐데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3: 자필 원고. “사도의 모후 대성전 - 성바오로수도회 - 비아 그로타페르페타 58 - 로마”라는 레터헤드가 상단에 인쇄된 200×140mm 크기의 종이에 또렷한 글씨체로 적혀 있다.

1. 그후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의 교사 자격시험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성바오로딸들이 또 [켄차노에 있는] 마에스트라 루이지나 보라노(Luigina Borrano)에게 왔다.

8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0년 3월 4일, [로마]

우리 공동체에서 파르마에 서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아첸자의 우리 서원을 성바오로딸들이 운영하면서 매일 (혹은 주중 사흘을) 파르마에 가 서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바오로수도회는 모데나 서원을 성바오로딸수도회에서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4: 자필 원고. 성바오로수도회 총원 레터헤드가 찍혀 있는 150×115mm 크기의 아주 얇은 종이에 적혀 있다. 글씨체가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 “모데나 서원”과 서명이 왼쪽 가장자리에 적혀 있다.

8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0년 4월 16일, 로마¹

주님께서 덕망이 높고 지식이 있으며 선하고 어질며 수도생활에 충실하고 사도직에 열정적인 장상들을 뽑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다음을 부탁드립니다.²

1) 유기서원자들은 5년 가운데 1년은 양성소에서 지내도록 해 주십시오.

2) 첫 3년의 임기를 마친 원장 수녀는 모두 (다른 공동체의 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다시 평수녀로 1년을 지내게 해 주십시오.

3) 모든 원장 수녀는 (3년은 한 공동체에서, 다음 3년은 다른 공동체에서 지낸) 두 번째 3년간의 원장직 재임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또 다른 공동체의 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적어도 2년은 평수녀로 살면서 더 훌륭한 양성을 받도록 말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85: 타자 원고. 레터헤드가 인쇄된 230×140mm 크기의 종이에 서명과 함께 적혀 있으며, 수신인은 없다.

*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다.

1. 페데리코 무짜렐리 신부가 쓰는 방식이다. (편지63의 각주 1 참조)
2. 이어서 나열한 규정은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회람지 “원장 수녀님들에게 (1950년 5월 8일자)”를 통해 원장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1953년판) 회헌 229조와 282조 1항에 삽입되었다.

8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0년, [로마]*

마에스트로님¹도, 하느님의 착한 자녀가 되는 것, 모든 이에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생각²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바칠 극기는 사도의 모후 성전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존재라 해도
어머니께서 우리를 천국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86: 자필 원고. (손으로 상단을 맞추어 봐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노트) 두
장에 적혀 있다. 첫째 종이에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마에스트라 테클
라가 계획한 내용 다음에, 그리고 서명 아래 썼으며, 둘째 종이에는
“훌륭한 영적 계획”에 대해 축복하였다. 두 종이에 사용한 잉크는 같
고, 글씨체는 힘겹게 쓴 듯하지만 또렷하며 동일한 어조를 띤다.

* 제안이 적힌 둘째 종이에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연필로 부드럽게 썼다.

** 특별한 표시를 하여 위쪽에 썼다가 본문에 삽입했다.

1.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를 지칭하는데, 그는 1948년 1월 24일에 선종하였다.
2. 다음은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영적 ‘작업지’에도 쓴 글이다.

존경하는 아버지,

저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줄은 모릅니다만, 언제나 더욱 하느님의 것이
되기 위해 일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게 결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모님은 저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신뢰합니다.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 하느님의 사랑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못된 제 성격에
도 불구하고 저는 성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영적 걸음을 하고자
하는 작업지를 동봉하오니, 이대로 괜찮은지 봐주시고, 괜찮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괜찮지 않다면 고쳐 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 드림

스승 예수님과 사도의 모후님, 성 바오로께서 이 훌륭한 계획³을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축복하듯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이, 오로지 언제나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좋으신 천상 아버지의 작은 자녀처럼 하느님께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듣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3.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훌륭한 영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1950년 영적 계획

- 1) 하느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피할 것: 세속적인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애착.
- 2)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닮을 것. 특히 겸손, 애덕, 인내, 관용 등 가정적인 덕에 있어 그분들을 닮아갈 것.
- 3) 하느님과 일치되어 살아갈 것. 예수님과 마리아를 온전히 신뢰할 것. 날마다 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 1) 내 생각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것인가?
 - 2) 인내하시는 (혹은 다른 덕에 관하여) 예수님을 닮았는가?
 - 3)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나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가?”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문서고)

8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0년 7월 6일, 마사 마르타나**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바오로딸들이 (알바나 로마 등의 공동체에서) 성바오로수도회에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브레샤에서 한 제안과 같은) 새로운 지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바오로딸들이, 성모님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 드는 천만 리라를 대출해서라도 성바오로수도회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상환될 것이며, 여러분은 성모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인사와 기도를 전합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테레사 수녀님이 토리노에 필요한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빛이 없이는 더는 살아갈 수도,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편지88: 자필 원고, 110×150mm 크기의 줄이 쳐진 단순한 종이 앞뒤에 적혀 있다. 글씨는 또렷하지만 괴로움이 느껴진다. 서명 다음에 적힌 내용은 흘림체가 아닌 정체로 곧게 작성되었으며, 간격이 본문보다 넓고 줄을 고려하지 않았다.

* 대각선 왼쪽에 적혀 있다.

** 날짜 / 월 / 연도 형식으로 적혀 있다.

*** 얼룩이 묻어 있다.

8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0년 성녀 테클라 기념일, [로마]* *

성녀 테클라의 이름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영웅적인 덕의 소유자로 기억되며, 천상 수호자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금년은 여러분이 성 바오로 사도를 더 사랑하고, 사도에게 더욱 신심 깊은 성바오로딸들이 되기를 빌며 기도하겠습니다. 테클라 성녀가 바오로 성인을 늘 가까이 한 모범을 따르며 다음 세 가지를 성바오로딸들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1) 성 바오로의 삶에 대한 글을 잘 읽고, 그의 서간들을 출간하여 보급할 것.

2) 성 바오로의 신앙과, 강하고 관대하고 진취적인 그의 열정을 본받을 것.

3) 성 바오로에게 더욱 신뢰하며 더 많이 기도할 것.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에서 영웅적이었고, 현명함과 의로움, 강인함, 절제**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89: 자필 원고. 270×185mm 크기의 단순한 편지지 한면에 또렷한 글씨체로 섬세하게 적혀 있다. 행간은 널찍하다.

* 날짜는 맨 아래, 서명 밑에 적혀 있다.

** '현명함'이라는 말을 반복해 썼다가, 다른 글씨체로 '절제'라고 고쳐 썼다.

1. 내용은 1950년 「사도의 모후」 회람지 10월 1호에 실렸다.

9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1년 9월 16일, 로마*

복자 비오 10세 교황님 재위 기간에 우리가 태어났으니, 교황님께서 우리가 초창기 정신을 잘 보존하여 나아가게 빌어주시기를 빕니다. 이 지향으로 성녀 테클라의 전구를 청하며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사제의 축복을 전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90: 자필 원고, 복자 비오 10세 교황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간격이 널찍하며 잘 읽힌다.

* 서명 아래 맨 밑에 적혀 있다.

9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2년 9월 22일, 로마*

테클라 성녀께서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성바오로딸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내일 이와 같은 지향으로 미사를 집전할 것입니다.

“성 바오로를 알고 본받고 그분께 기도하며, 성녀 테클라의 충실함과 성녀의 정신대로 사도직에서 바오로 사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바오로딸들 모두에게 큰 위안을 주시기를 빌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91: 자필 원고. 성바오로수도회 레터헤드가 찍혀 있는 105×145mm 크기의 엽서에 차분하고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으며, 마지막 두 줄만 급히 쓴 듯하다.

* 서명 아래 맨 밑에 적혀 있다.

9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3년 주님 부활 대축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마에스트라 이냐치아, 그리고 모든 성바오로딸에게¹

- 모든 것에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 성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저술과 편집 작업을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마지막 편집 작업과 최종 승인 작업 중에 있는 회헌을 위해 끝까지 충실하기를 바랍니다.²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92: 자필 원고, 110×145mm 크기로 자른 편지지에 반듯반듯한 글씨체로 적혀 있다.

* 왼쪽 아래에 적혀 있다.

1. 이 글은 「사도의 모후」 회람지 1953년 4월, 1호에 실렸다.
2. 최종 승인일은 1953년 3월 15일이다.

9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3년 9월 22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 보십시오

성녀 테클라 영명일을 맞아 축하와 기도를 전합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성바오로딸들 모두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첫째, 성녀 테클라는 구십 평생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을 하늘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성녀 테클라께서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장수의 은총을 주시고, 평온하고 공로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둘째, 성바오로딸들은 모두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지시에 따라 금년에는 단체 선교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¹ 이탈리아 본당을 방문하여 지면을 통해서나 직접 말로 소개한 바대로 서원과 영화 센터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셋째, 성 바오로께서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우리 모두가 인내롭고 친절한 애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² 다시 한번 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사도께서 당신 서간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녀 테클라 축일의 장엄함이 기쁨을 가져다주고, 성녀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녀 테클라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성녀의 삶의 성화를 통

편지93: 타자 원본. 230×150mm 크기의 편지지에 편지63과 85와 같은 형태와 타자체로 적혀 있다. 수신인과 서명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필체다. 별표시로 손으로 쓴 마지막 두 문장을 구분하였다.

1. 참조: 「사도의 모후」 회람지, 1953년 7-8월 2호.
2. 참조: 1코린 13,4 이하; 1953년판 회헌 175조.

해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나이다.”(전례문에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9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4년 12월 2일, [로마]

전에도 그랬고 늘 그러던 것처럼 성바오로딸들이 지금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맡게 될 소임을 위해 준비해 놓을 면학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이들 안에 최대의 믿음과 최고의 겸손이 더 필요할 따름입니다. 사도의 모후께서는 믿고 당신께 청하는 이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94: 자필 원고, 130×70mm 크기로 자른 종이에 적혀 있다. 글씨체는 또렷하며, 짧은 두 줄로 두 주제가 구분되어 있다.

9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4년,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집 한 채를 수리하는 데 천오백만 리라를 쓰기보다는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단체 선교를 위해서 승합차¹ 열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능숙한 운전자도 양성하고 말입니다. (혹시 수련자 중에도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수련자도 미리 배울 수 있겠지요?)

단체 선교라는 새로운 방식을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해에 성 바오로딸들이 사도의 모후께 드리는 합당한 경의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 드림

편지95: 자필 원고.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절단되지 않은 145×100mm 크기의 노트 종이에 적혀 있다. 다소 피곤함이 느껴지는 글씨체지만 읽기에는 무리가 없다. 서명은 머리글자 P.M.으로만 적혀 있다.

* 날짜 생략됨. 마리아 해를 언급하였기에 연도를 추정해 적었다.

** 수신인이 적힌 같은 줄에 적혀 있다.

1. 상자를 넉넉히 실을 수 있는 작은 승합차를 말한다. 선교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곤 했다.

9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5년 9월, 로마]*

수녀님이 여행하시는 동안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9월 초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서원¹을 성바오로딸들이 운영하게 되었다니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자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빕니다.
 제게 말씀하신 그 땅²을 런던에서 매입하게 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 안에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96: 자필 원고. 메차나(Mezzana)의 '천상 스승' 상본 뒷면에 적혀 있으며, 서체가 고르지 않지만 잘 읽힌다.

* 낱짜 생략됨. 당시 런던 공동체 원장이던 비스코(R. Visco) 수녀의 도움으로 낱짜를 적었다.

1. 런던 서원은 1955년 9월에 성바오로딸들이 인수하였다.
 2. 땅은 1955년 11월에 매입했고, 그 땅에 지금의 공동체 집이 마련되었다.

9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6년 성녀 테클라 기념일, [로마]

여러분을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녀님의 영명일을 맞아, 페데리코 무짜렐리 신부님¹을 사랑으로 간병하고 임종을 준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위해, 그리고 수녀님의 지향으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일기도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수도회 식구 전부에게 부탁드립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수녀님에게 온순하고 진심을 담아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² 내릴 것입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97: 자필 원고. 사도의 모후 병원 엽서 오른쪽에는 주소가, 왼쪽에는 편지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수신처에 도착했을 때는 봉투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정자체로 조그맣게 쓰였으며, 주제별로 짧은 선을 그어 구분하였다.

1. 페데리코 무짜렐리 신부는 1956년 6월 21일에 알바 사도의 모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2. 단수형으로 축복하는 방식은 문어체에서 쓰던 방식이다.

9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6년 주님 성탄 대축일, [로마]

아주 큰 감사를 드리며, 저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957년에는 우리 모두 성 바오로가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해석자이며, 그분을 가장 충실히 닮은 분이고, 가장 성실한 사도로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성 바오로의 참된 아들딸들이 되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98: 자필 원고. 산타가타(A. G. Santagata)의 주님 공현을 회화로 표현한 그림엽서 위에 적혀 있다. 왼편에만 치우쳐 있으며, 글씨는 또렷하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진다.

9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7년 성녀 테클라 기념일. [로마]*

날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성바오로딸들 모두가 수녀님과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생각이나 생활에서, 또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직에서 하나가 되기를 빕니다.

성바오로딸들은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통해 주님과 일치해 살아갈 것이며,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일치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99: 자필 원고.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과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를 물고 있는 비둘기가 그려진 회화식 그림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거기에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 원본에는 날짜가 맨 아래에 적혀 있다.

10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9년 주님 부활 대축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마에스트라 이냐치아, 그리고 모든 성바오로딸들에게

기도와 부활 선물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빌어주시는 교황 요한 23세의 지향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 로마 주교 시노드를 위해
- 교회법 개정을 위해
- 공의회를 위해

여러분 한분 한분, 그리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적 결실이 풍요로운 주님 부활 대축일을 보내시기를 빕니다.

늘 믿음과 겸손 안에서, 평온하게 전진하십시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10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9년 6월 4일, [로마]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로 잘 걸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이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살핌에 기꺼이 의탁하는 이의 아버지시니까요.

어두운 터널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빛으로 위로해 주시며 새로이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읍시다. 그분이 만족스러워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작에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이름을 담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수녀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증거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전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01: 자필 원고, 110×145mm의 평범한 종이에 또렷하고 깔끔한 글씨체로 쓰였다. 서명은 왼쪽 가장자리에 있고, 왼쪽 상단에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낱씨를 적어넣었다.

10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9년 9월 23일, [로마]*

존경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수녀님의 건강과 성바오로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고, 기쁘게 지내기를 빕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02: 자필 원고. 상본 뒷면에 작은 글씨로 어렵게 쓴 듯 느껴진다.

* 날짜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편지 밑에 쓴 것이다.

10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9년 10월 16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여행을 잘 하시도록¹ 구일기도 미사를
드렸습니다.

○○는 제가 말한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모두 천상 고향을 향한 여행이므로 한 걸음 한 걸
음이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03: 자필 원고. 상본 뒷면, 작은 글씨로 어렵게 쓴 듯 느껴진다. 날짜는
맨 아래 서명 밑에 있다.

1.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1959년 9월 13일에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총원장
M. 루치아 리치(Lucia Ricci) 수녀와 함께 남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다.

10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59년,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성바오로딸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더불어 그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평온함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곳 로마에서 선한 의지를 지닌 자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녀님이 방문하여 만나게 되실 성바오로딸들에게 저의 인사와 축복을 전해 주십시오. 자매들이 초자연적인 정신을 지닐 수 있기를 빕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평온하게 지내라고 하십시오.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04: 자필 원고. 그림 위에 다음과 같이 인쇄된 글이 적혀 있는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 요한 23세 교황이 구세주 예수님과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 그리고 보편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맡기다 — 바오로가족은 성 요셉을 통하여 교황의 지향에 일치하여 주님께 공의회를 통해 좋은 결실을 안겨주시도록 기도한다.” 별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이 계속 이어진다. “성 요셉님,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성 요셉님,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테두리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축복, 감사, 천상 행복. 알베리오네 신부” 글은 여백을 가득 채웠고, 작은 글씨체로 적혀 있으나 잘 읽을 수 있다.

* 날짜 생략됨. 공의회를 언급하고 있고, 편지100번과 연관되므로 여기에 연도를 붙였다.

** 상본 그림 아래 부분에 밑줄이 쳐진 채로 적혀 있다.

10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0년 주님 부활 대축일, 로마]*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성바오로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축복을 빌며.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05: 자필 원고. “1959년 주님 부활 대축일”이라고 인쇄된(편지100번 참조)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 본인이 섬세하게 펜으로 연도를 수정했다.

106.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0년 9월 14일, 로마

좋은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주님께서 수녀님이 하시는 여행에 함께해 주시고, 스페인에 있는 수녀님들을 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꽤 힘든 여행이었을 테지만, 수녀님들 모두를 위해서는 사랑의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모두 기뻐하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도회는 모두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고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수도회를 사랑과 기도, 모범으로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쁘고 온화한 신뢰를 드리십시오.

지금 성바오로딸들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¹ 앞으로 이 덕에 관해서 같이 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시고 수도회의 모후로 모십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며, 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조금 드리웠다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평온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106: 자필 원고, 120×150mm 크기의 노트 한 장에 적혀 있다. 작고 또렷한 글씨체이지만 약간 떨림이 있다.

* 대각선 왼쪽에 적혀 있다.

1. 알베리오네 신부는 겸손에 관하여 성바오로딸들에게 두 번에 걸쳐 묵상을 나누었다. 한 번은 1960년 9월 23일에 했고, 다른 한 번은 1960년 9월 28일에 했다. (참조: 알베리오네, 「묵상 모음」, 1960년,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 문서고)

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빌며[.]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107.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0년, 로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당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도록 말입니다.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는 많은 것에 대해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자비송을 바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함께 성바오로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또 성바오로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축복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07: 자필 원고. 그림 위에 다음과 같이 인쇄된 글이 적혀 있는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 성 요셉 —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 보편교회의 보호자 성 요셉 —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 성 요셉 — 노동자의 벗이며 모범이신 성 요셉 — 위대하고 겸손하며 침묵 중에 살아가신 성 요셉 — 가난하고 고통 받고 길 잃은 이의 희망이신 성 요셉.” 인쇄된 별표 뒤에 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파스카: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 — 축복을 담아 G. 알베리오네 신부.” 넓은 공간을 남겨둔 채 작은 글씨로 쓰였다.

* 날짜 생략됨. 우리가 이 연도를 여기에 붙인 것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106번 편지에 드러난 생각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108.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1년 성 요셉 대축일, 로마*

예수님의 양부 성 요셉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의 거룩한 전례에 깊이 맛들이는 은총과 파스카의 풍성한 결실을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축복과 기도를 담아.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08: 자필 원고. 상본 그림 위에 섬세하고 정갈한 서체로 적혀 있다.

* 서명 아래에 적혀 있다.

109.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2년 사랑의 해, [로마]

가난한 여러분이 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선물에 감사합
니다. “여러분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을 빌며.**

신뢰하십시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09: 자필 원고. 한가운데에 ‘사랑의 특성’(1코린 13,4-8)이 인쇄된 그림 상
본 위에 쓰여 있으며, 다음 글은 연판인쇄로 새겨졌다.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 인사와 기도를 담아 — 1962년: 사랑의 해, G. 알베리
오네 신부”

* 인쇄된 글 위에 적혀 있다.

** 마지막 줄과 서명은 인쇄된 글 아래에 적혀 있다.

110.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2년 2월 21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어디로 편지를 써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쨌든 막 다녀오신 여행 동안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함께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바오로딸들 몇 명은 영어를 배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수녀님들이 로마 공동체에 있다면 영어를 배우러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낫겠지요. 이탈리아에서는 라디오로 배울 수 있는 영어 수업도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수녀님들이 몇 명 외국에서 온다면 다른 수녀님들도 배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수녀님의 건강이 약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 수녀님의 건강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거든요. 계속 여행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까요? 환경이나 분위기가 좋은 장소나 공동체에서 길게 좀 머무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십시오. 마리아님의 팔에 안겨 마음 폭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맡기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좀 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편지110: 자필 원고, 성바오로수도회 총원 레터헤드가 찍힌 종이에 세로로 섬세하고 정갈한 글씨로 썼다.

* 두 번이나 적혔다. 하나는 왼쪽 사선으로, 다른 하나는 주소와 레터헤드 위에 쓰여 있다.

1.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당시 필리핀에 있었다. 그곳에서 병을 얻었는데 짧은 기간 약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축복을 빌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주 소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서 오로지 믿음으로!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111.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2년 8월 20일, 보스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기다리며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훌륭한 말씀¹이 성바오로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빕니다.

축복을 빌며.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11: 자필 원고. 상본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썼으나 읽을 수는 있다.

*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적었다.

1. 아마도 1962년 6월 28일자 회람지를 말하는 것 같다.

112.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2년, 로마]*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여러 번 하고, 경험도 한 다음에,
읽고 나서 수정한 것을 다시 제게 보내주십시오.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들은 주교나 교황 대사를 위해 봉사하거나 교구 교리교육 센터에서 일하는 등의 고정적인 외부 봉사를 하거나 (회헌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출판사의 업무에 봉사할 것이 아니라, 회헌 (2조)에 따른¹ 공동체 생활과 고유 사도직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서서히 기회가 생겨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고유 사도직을 하게 될 것이다.

저술과 편집 작업을 위하여 회헌 257조를 다시 읽으십시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드림

편지112: 자필 원고, 135×100mm 크기의 편지지 뒷면에 또박또박 섬세하게 정자체로 적혀 있다.

* 날짜 생략됨. 1962년에 성바오로딸들이 몇몇 교리교육 업무를 그만 두게 되는 시점이므로 편지 내용에 준하여 그 연도를 적었다.

1. 여기에 인용한 회헌은 1953년판이다.

113.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3년 4월 15일, [로마]*

알렐루야!

은총의 삶 = 기도

진보하셨군요.

전진하십시오! 천상 영복을 누릴 때까지!

축복을 보내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13: 자필 원고.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자간이 넓고 약간 떨림이 있지만
 또렷하게 쓴 서체도 보인다.

* M. 이냐치아 발라가 편지 위쪽에 적었다.

114.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1963년 6월 20일, [로마]*

좋으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온 마음을 다해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이 수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공로를 쌓을 때입니다.

저는 미사 때 특별히 교황 요한 23세께 신뢰를 둡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님들은 언제나 진심을 다해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큰 축복을 보내며,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14: 자필 원고, 형상화 된 그림, 곧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영혼이 천사의 위로를 받아 신앙의 빛을 받고 있는 그림 상본 뒷면에 적혀 있다.

* 아래에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서체로 적혀 있다.

115.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성소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성바오로딸들이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온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직이 이만큼 빨리 발전하고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성바오로딸수도회와 수녀님들 안에서 아주 많이 활동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마에스트로 알베리오네 드림

편지115: 자필 원고. 상본 뒷면에 적혀 있는데, 상본 그림 위에는 큰 글씨로 “망덕송”이라고 인쇄돼 있다. 노년기에 썼기에 글씨에서 손 떨림이 느껴진다.

* 날짜 생략됨. 이 편지를 이 서한집의 결론처럼, 그리고 성바오로딸들 각자의 영적 계획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둔다.

발행일 | 2022년 11월 1일
옮긴이 | 김화순 · 박미애
펴낸곳 | 바오로딸